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38호 【루계 제25647호】 주체106(2017)년 5월 18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캄보쟈푼씬뻭크당 위원장이 꽃바구니와 축전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노로돔 라나리드 캄보쟈푼씬뻭크당 위원장이 꽃바구니와 축전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전을 10일 캄보쟈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푼씬뻭크당 위원장고문이 전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노로돔 라나리드위원장과 전체 당원들은 가장 열렬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는 존경하는 원수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태양절에 즈음하여 캄보쟈 앙코르 홀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태양절에 즈음하여 라오스국가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를 태양절에 즈음하여 뽈스까 또룬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를 태양절과 건군절에 즈음하여 이딸리아의 공산당이 4월 28일 로마 까롤로 젤리니인쇄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를 건군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크니쥬느이 미르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4월 21일에 진행되였다.

발행식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발행식장에 전시되여있었다.

발행식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로씨야 작가동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그루빠 인사들과 성원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웨.아.볘뜨로브, 로씨야작가동맹 성원 류드밀라 아브제예바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은 청년들이 나아갈 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이다, 매개 나라들에 있어서 앞날의 주인공들은 청년들이다, 오늘 세계의 이목은 훌륭한 청년대오를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있는 조선에 집중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청년들이 시대의 주인공, 전위투사들로 억세게 자라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조선청년들은 미제의 온갖 도발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련이어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시는 걸출한 수령

태양절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에스빠냐, 베닌에서는 로작연구토론회가, 스리랑카, 스웨리예, 프랑스, 쎄르비아, 에짚트에서는 업적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토론회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에스빠냐 마드리드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의 기본내용을 해설하고 김일성주석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명철한 해답을 주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라고 칭송하였다.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에 대한 연구토론회에서 걸출한 국가령도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은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현명한 령도, 숭고한 인덕으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신 인류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스웨리예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일찌기 투쟁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동지는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를 해방하시였으며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반제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그이께서는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김일성주석의 한평생은 나라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 세계자주화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바치신 성스러운 한생이라고 찬양하였다.

에짚트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각하를 진두에 모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사상 최악의 정치, 경제, 군사적위협과 도발책동을 단호히 쳐갈기며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달성하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

태양절에 즈음하여 네팔, 방글라데슈, 캄보쟈, 파키스탄, 로므니아, 체스꼬, 벌가리아에서 경축집회, 업적토론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강연회, 좌담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혁명의 회전성기를 펼쳐주시여》를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네팔 과학기술상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 고매한 풍모를 지니신것으로 하여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신 걸출한 수령이시다, 인류자주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바치신 그이의 탄생일은 앞으로도 세계적인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경축될것이다고 언급하였다.

방글라데슈자리야당 총비서,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은 위대한 수령님을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희세의 정치원로로 높이 칭송하고 주체조선의 영광스러운 100년사는 김일성주석의 존함과 더불어 빛을 뿌리고있다고 말하였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은 주체,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조선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자주성을 위한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시여 마련해놓으신 튼튼한 토대들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 번영의 확고한 담보로 된다고 찬양하였다.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명예위원장은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온 생애와 넋을 깡그리 바치신 인류의 태양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벌가리아공산주의자당 위원장,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은 위대한 김일성동지 그대로이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조선의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위대한 사변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 성공소식에 온 나라가 끓는다

사생결단의 의지로 과학전선에서 대승전고를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을 안아온 로케트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을 우리 국가과학원 전체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이름으로 열렬히 축하한다.

정말로 속이 후련하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주체조선의 무쇠주먹으로 드센 강타를 안기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체탄》이라고 불러주신 우리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의 시험발사성공은 첨단기술독점야망에 들떠 이른바 과학기술대국이라고 자처하는 아메리카제국에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로 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원쑤들은 이제 더는 우리 선군조선앞에서 호지부지할수가 없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케트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어깨겯고 과학전선을 함께 지켜선 조선로동당의 과학전사들로서 우리 식의 위력한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 성공이라는 대승리가 얼마나 값비싼것인가를 잘 알고있다.

지금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시험에 참가한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과 찍으신 뜻깊은 기념사진이 모셔진 당보를 펼쳐보면 때의 흥분과 격정을 잊을수 없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전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략적구상을 죽으나사나 우리 식의 또 하나의 완벽한 무기체계개발이라는 과학기술대승리로 받들어야 한다는 신념과 의지를 억세게 벼리며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걸어온 사색과 탐구의 가시덤불길, 생눈길이 어떤것인가를, 어머니당과 조국에 힘이 되고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는 과학기술성과들이 과연 어떻게 마련되는가를 우리는 기념사진속의 이 구호를 보며 모두가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말씀하신것처럼 후손만대에 물려줄 고귀한 국보인 《주체탄》에는 령도자는 과학자들을 믿고 과학자들은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일심단결의 사상, 혼연일체의 넋이 높뛰고있으며 죽어도 당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관철하자는 신념의 구호를 심장으로 웨치며 피어린 결사전을 벌려온 로케트연구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영웅적투쟁사가 깃들어있다.

전화의 나날 당과 수령께 다진 맹세를 지켜 불뿜는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은 리수복영웅과 같은 육탄용사가 되지 않고서는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의 전초선인 과학전선을 지켜낼수 없다.

우리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우리 식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의 개발자들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바라시고 인민이 기다리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생결단의 일대 결사전을 벌려나가겠다.

그리하여 나라의 국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을 여는데 이바지하는 과학기술대승리의 통장훈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부르고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서겠다는것을 결의한다.

국가과학원 원장 장 철

핵강국을 떠받들 인재들을 더 많이

우리의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은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으로서의 우리 조국의 위용을 과시하며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무한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고있다.

참으로 가슴후련한 민족사적장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러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이룩되고있는 우리 조국의 모습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낼수 있는 강력한 힘이 나날이 커가고있으며 백두산대국의 줄기찬 전진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철리를 다시금 페부로 절감하게 된다.

무변광대한 하늘을 날은 《주체탄》에는 우리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생들의 열정과 땀방울도 깃들어있다고 생각할 때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영예와 보람은 그지없이 크다.

그와 함께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나라의 과학기술교육의 최고전당으로 빛나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책임일군으로서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문명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담보되며 우리 국가의 미래는 교육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과학기술을 끌고나가는데서 선두마차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이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드높은 열정으로 높뛰게 하고있다.

당이 지펴준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높이 세계일류급대학건설에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우리의 발걸음소리는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대학에서는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체계를 완비하는 사업에서 큰걸음을 내짚었다.

이에 기초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더 힘차게 밀고나가겠다.

특히 공학교육에서 중시되고있는 학생들이 자체로 착상, 설계하고 제작하는것과 함께 조종도 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원만히 실현함으로써 그들모두를 창조형인재들로 키워나가겠다.

교원, 연구사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창조적인 탐구능력, 능숙한 교육교양방법을 소유한 유능한 교육자, 실력가로 준비시키며 학생들속에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겠다.

뿐만아니라 지난 기간에도 그러했던것처럼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활동을 더욱 맹렬히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적극 추동해나가겠다.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들을 활성화하여 첨단기술제품들을 적극 개발하는것도 우리 대학에서 내짚고있는 중요한 목표들이다.

지금 우리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주체적핵강국을 과학기술로 굳건히 떠받들어나가는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 교육자들의 드높은 열의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우리는 이 기세를 늦추지 않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체과학의 위력을 과시하는데서 대학이 맡고있는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것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홍서헌

알곡증산으로 우리 당을 받들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 성공!

참으로 가슴벅차고 후련하다.

세기를 주름잡는 만리마속도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전진해나가고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소식이다.

마른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듯 덴겁하여 기절초풍한 미제와 더러운 추종세력들의 가련한 몰골도 눈앞에 보이는듯싶어 더욱 통쾌함을 금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핵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세계가 보란듯이 새형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를 성과적으로 개발해낸 로케트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그 손목이라도 한번 잡아보고싶다.

이 자랑찬 성공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크나큰 힘과 고무를 안겨주었다.

우리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을 지켜섰다는 높은 책임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알곡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겠다.

물론 우리의 귀중한 사회주의제도를 어째보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와 더러운 추종세력들의 전대미문의 가혹한 제재책동으로 하여 부족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나라의 국방력강화의 제1선참호를 지켜선 로케트연구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처럼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떨쳐나선다면 극복 못할 난관이나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우리는 식량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은 곧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옹호보위하기 위한 치렬한 반제계급전이며 총포성없는 싸움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당면한 모내기전투를 비롯한 모든 영농작업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겠다.

그리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인 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기어이 알곡고지점령의 승전고를 울리겠다.

문덕군 룡변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리봉길

로케트연구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투쟁정신으로 유색금속광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주체탄》은 우주로, 미제는 멸망의 나락에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 성공소식에 접한 우리는 지금 끓어오르는 감격을 억제할수 없다. 정말 심장이 터질듯 흥분을 금할수 없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우리는 또다시 이겼다, 이겨도 크게 이겼다는 생각에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싶은 심정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위적국방력은 선군조선의 존엄이고 자주권이며 승리의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7(1948)년 12월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기관단총으로 시험사격을 하신 뜻깊은 곳에서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전하여주는 우리의 심정은 더욱 그러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날에 울리신 력사의 총성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할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수 있었고 오늘 또다시 세계를 뒤흔드는 위대한 사변을 맞이하게 되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사상 최대의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면서 위협공갈하고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한갖 파철더미로밖에 보지 않는다. 원쑤들이 제재의 올가미를 조일수록 우리의 군력은 백배로 강해지고있다.

우리의 《주체탄》이 우주만리에 닿을수록 원쑤들은 헤어나올수 없는 최후멸망의 나락에 처박힐것이다. 조선의 로케트가 창공높이 치솟아오를 때 우리의 승리의 전통은 더욱 빛나고 미국의 멸망의 무덤은 더 깊어진다.

적들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전략로케트들은 쉼없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르며 무적의 군력을 만방에 떨칠것이다. 놈들이 움쩍하기만 한다면 그 순간에 저주로운 미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모든 침략소굴들이 재가루로 될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에 안고 자립적국방공업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투쟁해나가겠다.

평천혁명사적관 관장
량애경

미국식허세를 꺾어버린 통쾌한 승리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 성공소식에 접한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격동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의 핵억제력이 상상할수 없이 빠른 속도로 비상히 강화발전되고있다는 확신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핵없는 나라, 힘이 약한 민족만을 골라 군사적으로 롱락하는 비겁한 미국식허세가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 통쾌함에 새 힘이 절로 솟구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며 나라의 강성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우리 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현시대의 요구에 맞는 또 하나의 완벽한 무기체계, 《주체탄》의 탄생은 명실상부한 핵강국으로서의 우리 조국의 지위를 더욱 뚜렷이 하여준 특대사변이다.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선군조선의 현실은 우리 인민군장병들에게 필승의 신심을 백배해주고있다.

미국이 그 무슨 압박이니 뭐니 하며 조선반도주변에 핵전략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우리를 위협공갈하고있지만 가소롭기 그지없다. 미국이 온전한 리성과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 성공소식을 대한다면 그 무엇으로써도 선군조선의 존엄을 절대로 허물수 없으며 병진의 기치따라 굽힘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진군을 멈춰세울수 없다는것을 통절히 깨닫게 될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로는 되지 않을것이다. 미제가 허장성세하며 날뛰고있지만 조선의 탄도로케트들이 미국에 실지로 위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미제가 감히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군사적도발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상대해줄 준비가 되여있다. 부질없는 경거망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서뿔리 건드리는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는것을 세계가 똑똑히 보고 력사가 대를 두고 기억할수 있게 해줄것이다.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대사변을 두고 우리 인민군장병들이 다시금 확신하게 되는것이 있다. 우리가 핵억제력을 질적으로, 량적으로 장성강화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자랑찬 현실을 어찌 생각할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선택한 병진의 길이 천만번 옳았다.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는데 필요한만큼 핵억제력을 계속 확대강화하여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철옹성같이 다지고 정의의 핵보검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무섭게 다불러대야 한다는것이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 한몸바칠 결사의 각오로 충만된 천만장병들은 이 시각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만을 기다리고있다.

조선인민군 군관 박종길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4)

선군혁명의 위대한 개척자이신 백두산청년장군을 우러르며

반일인민유격대 창건
1932.4.25

항일혁명투쟁시기관의 4호실 벽면들의 맨우에 부각되어있는 글발들이 이 호실의 사상주제적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알수 있게 하였다.

《조선혁명군의 정치군사활동, 무장투쟁을 위한 대중적지반축성》, 《무장에는 무장으로!》, 《반일인민유격대 창건》, 《남만진출》.

4호실은 조선혁명군이 결성되던 주체19(1930)년 7월부터 첫 무장대오의 남북만진출에 이르는 주체21(1932)년말까지의 력사적내용들을 포괄하고있었다. 벽면들에 도드라지게 형상된 기둥들에는 오각별과 붉은기가 있고 그밑에 엇갈리게 세워진 두자루의 보총 아래우에 권총탄알들과 보총탄알들이 새겨져있어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고 승리해온 조선혁명의 선군행로에 대해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군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총대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시작되였습니다.》

우리는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먼저 조선혁명군의 정치군사활동에 대한 자료들부터 보았다.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미술작품앞에서 발길을 옮기지 못하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불멸의 선군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준비를 위한 첫 사업으로 주체19(1930)년 7월 6일 이통현 고유수 삼광학교운동장에서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였다.

조선혁명군의 첫 대오에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권동지를 비롯하여 차광수, 김혁, 최창걸, 최효일, 공영 등 세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망라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기를 수여하시기에 앞서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군은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준비하기 위한 조선혁명가들의 정치 및 반군사조직이라고 하시면서 조선혁명군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상비적인 혁명무력이 창건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선군의 기치밑에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조선혁명가들의 첫 혁명적무장조직은 이렇게 태여났다.

호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장소조원들의 사격훈련을 지도하시는 영상미술작품과 조선혁명군결성과 관련한 회상자료, 이통현 고유수 리가툰의 마을전경사진을 비롯하여 당시의 력사를 말해주는 귀중한 자료들이 수많이 전시되여있었다.

조선혁명군의 정치군사활동에 대한 자료들중에서 특히 참관자들의 눈길을 끈것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투쟁내용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군의 무장소조를 공주령, 할빈을 비롯한 만주의 넓은 지역에 파견하시는 한편 이 시기에 벌써 장차 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할 구상을 안으시고 김형권동지를 책임자로 하는 무장소조를 국내에 파견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무장소조를 이끄시고 풍산(당시), 리원, 북청, 홍원일대에서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였다.

호실의 벽면에는 김형권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그이의 투쟁내용에 대한 리인모동지의 수기와 《동아일보》 1930년 9월 4일부, 9월 5일부에 실린 반중자료를 비롯한 중요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참관자들은 풍산군(당시) 파발리주재소습격사건에 대하여 신문에 《풍산에 돌현한 무장단 4명, 순사부장 사살하고 사라짐. 자동차를 뺏어타고 산속으로 자취를 감춤》이라는 보도를 읽으면서 김형권동지께서 벌리신 눈부신 무장소조활동에 대해 통쾌함을 금치 못해하였다.

언제인가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형권삼촌이 파발리주재소를 습격한 사실은 리인모가 잘 안다고 하시면서 그때의 일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고 한다.

조선혁명군의 다른 무장성원들도 국내와 만주의 여러 지점들에서 전투를 벌려 무기를 마련하고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웠다. 그에 대해서는 호실에 전시되여있는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제1집의 《본군은 김성주, 차광수, 김혁, 최효일 등 청년투사들을 망라하여 길림성 이통현을 중심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청년들의 집합이니만치 그 운동은 대단히 용감하였다. 당시 혁명운동선상에 많은 공헌을 남기였다.》라고 쓴 글을 읽으면서도 잘 알수 있었다.

주체19(1930)년 12월 25일 회덕현 오가자에서 열린 조선혁명군 지휘성원 및 혁명조직책임자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미술작품앞에서 강사는 우리에게 이 회의에서 투쟁무대를 동만으로 옮기고 항일무장투쟁준비를 더욱 본격적으로 다그쳐나갈데 대한 방침이 제시되였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회의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기 위해 장춘쪽으로 가시던 도중 적들에게 체포되시여 20일가량 옥중생활을 하시였는데 《동아일보》에 이 사실이 실리여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처음으로 신문에 나게 되였다고 하는것이였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우리 수령님께서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꾸리기 위하여 얼마나 간고하고도 위험천만한 길을 서슴없이 걸으시였는가에 대해 다시금 가슴에 새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첫 사업으로 조선혁명군대원들과 혁명조직핵심성원들을 위한 강습을 조직하시고 무장투쟁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쳐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신데 이어 주체20(1931)년 5월 20일 연길현 명월구에서 진행된 당 및 공청간부회의에서 각계각층의 반일애국력량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단합시킬데 대한 혁명적조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이 로선관철을 위해 홍룡촌, 대사하, 소사하 등 안도일대와 룡음일대를 비롯한 북부국경일대에서 무장투쟁준비를 위한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가자에서 진행하신 혁명활동에 대하여 말해주는 력사자료들과 혁명사적물, 유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이께서 대중혁명화를 위해 얼마나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는가를 깊이 느끼게 되였다.

지금도 우리 수령님의 체취가 풍기는듯싶은 호미며 다래끼, 자그마한 앉은책상을 바라보느라니 낮에는 농민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그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였고 밤에는 밤대로 차광수, 계영춘, 김원우 등 청년공산주의자들과 담화도 하시고 《볼쉐비크》, 《농우》를 비롯한 혁명적출판물들도 발간하시느라 온갖 정력을 쏟으시던 그이의 열정넘친 모습이 어려와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오가자에서 첫 무료교육이 실시되고 《꽃파는 처녀》, 《성황당》과 같은 수많은 혁명적문예작품들이 창작보급된것도 그리고 《교하의 아주머니》에 대한 가슴조이는 일화며 우리 수령님께서 장울화동지의 도움으로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신 이야기도 이 나날에 있은 사실들이라고 강사는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조선혁명군이 결성되고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이 꾸려지게 됨으로써 앞으로 조직적인 무장투쟁단계에로 넘어갈수 있는 정치군사적준비가 완성되게 되였다.

강사는 1931년 9월 18일 오래전부터 대륙침략의 기회를 노려오던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켰다고 하며 그 자료들을 가리켰다.

만주를 강점한 일제는 후방의 안전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무고한 조선인민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일명 9.18사변으로 불리우는 만주사변은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반일감정을 극도로 격화시켰다.

천리혜안의 예지로 조성된 정세의 긴박성과 혁명의 유리한 환경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실천적으로 항일무장투쟁에 돌입할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주체20(1931)년 12월 16일 연길현 명월구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무장에는 무장으로,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이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기본형식은 유격전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겨울명월구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미술작품을 우러르면서 참관자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식민지민족해방전쟁에서 유격전이 기본전투형식으로 된다는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신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선군혁명의 걸출한 개척자, 불세출의 위인이심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강사는 흥분에 젖어있는 참관자들을 무기획득을 위한 투쟁자료들이 전시된 곳으로 안내하였다.

강반석어머님으로부터 김형직선생님의 유산인 두자루의 권총을 물려받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미술작품, 무기획득을 위한 싸움에 나선 한 조직성원을 형상한 조각상, 당시의 신문, 사진들과 일제의 반중자료들…

우리는 강사의 해설도 듣고 전시된 자료들도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앞장에 서시여 조직령도하신 무기획득을 위한 피어린 투쟁의 나날을 숭엄히 그려보았다.

새형의 혁명적무장력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체21(1932)년 4월 25일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다.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그날의 력사적인 화폭을 형상한 영상미술작품앞에 섰다.

한손을 높이 드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을 엄숙히 선포하시는 백두산청년장군 김일성동지.

영상미술작품아래에 조선인민혁명군의 목적과 사명에 대하여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부각되여있고 불후의 고전적로작 《반일인민유격대창건에 즈음하여》가 전시되여있어 그날의 우리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금시 들려오는듯싶었다.

벽면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실 때 메시였던 싸창과 김형직선생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중의 하나가 전시되여있었다.

지난 3월 27일 새로 훌륭히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혁명력사의 생동한 증견물인 이 사연깊은 권총들을 보시며 안도에서 울린 싸창소리가 오늘은 수소탄의 폭음으로 온 세상을 뒤흔들어놓았다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고 한다.

백두의 수림속에서 울린 싸창소리로부터 수소탄의 폭음으로, 여기에 백두산장군들의 슬하에서 무적필승, 백전백승의 력사만을 아로새겨온 영웅적조선인민군, 백두산혁명강군의 85년사가 성스럽게 집대성되어있는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강사의 해설은 참관자들의 사색을 건군의 그날에로 이끌어갔다. 드넓은 광장도 아니였고 요란한 주악도 행진도 없었다. 한 나라 군대의 창건식이라 하기엔 너무도 소박하였다. 이깔나무숲으로 둘러싸인 등판의 공지에 강반석어머님의 따스한 온기가 슴배인 새 군복을 떨쳐입고 무기를 멘 100여명의 대원들이 구분대단위로 정렬하였다.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김일성동지와 피와 목숨을 나눌것을 맹약한 열혈혁명가들의 장한 대오였다. 여기 조선혁명박물관에 사진의 모습으로 있는 건군위업에 이바지한 지휘관들인 리광동지, 한성룡동지, 박동근동지, 안길동지, 차룡덕동지의 얼굴도 불멸의 화폭과 더불어 보이는듯싶다.…

그날의 광경을 그려보는 참관자들의 얼굴마다에 자기들도 영광스러운 우리 혁명의 첫 무장대오에 서있는것만 같은 환희와 선렬들의 넋을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비상한 의지가 력력히 비껴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은 총대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혁명의 주력군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으며 우리 혁명이 선군의 길로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게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강사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그때 우리 혁명무장력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고싶어했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엿새후인 5월 1일 붉은기를 앞세우고 안도현성에 입성하여 나팔을 불고 북을 두드리면서 보무당당히 열병행진을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성안의 인민들뿐아니라 반일부대들까지 거리에 떨쳐나와 엄지손가락을 흔들며 환영의 인사를 보내고 축하의 박수를 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부대를 사열하시자 열광의 환호는 절정에 달하였다. 인민들은 민족이 낳은 절세의 영웅, 조국해방의 절절한 숙망을 이루어주실 위대한 은인을 모신 환희에 넘쳐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주체21(1932)년의 소박했던 그 열병행진이 85년후인 오늘에는 얼마나 장엄하고도 영광스러운 열병식으로 성스럽게 이어졌는가.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되던 안도현 소사하 토기점골등판이며 5.1절 열병식이 진행되였던 안도현성거리사진과 사적물들, 당시의 출판물을 비롯한 전시된 자료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선군혁명의 위대한 개척자, 백두산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과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었다.

강사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만원정의 길에 오르신데 대하여 이야기하며 우리를 다음벽면에로 안내하였다.

그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만원정을 떠나시기에 앞서 동지들이 마련해준 좁쌀 한말을 드시고 앓는 어머님을 찾으시였던 소사하집이 옛 모습그대로 형상되여있었다.

금시라도 방문을 여신 강반석어머님의 모습이 안겨오는것만 같은 옛 소사하집, 어머님의 체취가 느껴지는듯싶은 독이며 그릇들, 노전을 깐 방안과 이부자리…

숭엄한 추억속에 잠겨 소사하옛집을 바라보느라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준엄하고도 시련에 찬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검열하는 그런 곡경에 처할 때마다 자신을 남만으로 보내면서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과 흰옷을 입고 나를 바래주던 어머니의 마지막모습을 회고하며 의지를 가다듬군 하셨다고 쓰신 회고록의 구절이 소중히 되새겨졌다.

강사는 벽에 전시된 조선인민혁명군의 남북만진출 주요로정도를 가리키며 우리 혁명군대의 첫 전투승리를 안아온 소영자령전투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소영자령은 안도에서 명월구로 넘어가는 중간지점에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 후 총을 들고일어난 이상 총성을 울리기로 결심하시고 전투를 직접 조직지휘하시였다. 그이의 명령에 따라 대원들은 야간행군으로 소영자령에 도착하여 매복하였다가 일거에 적들을 소탕하고 많은 무기와 식량을 로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소영자령에서의 첫 전승으로부터 이어진 우리 혁명군대의 백전백승의 행로는 얼마나 자랑스럽고도 통쾌한것인가.

조선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준 보천보전투, 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휘된 고난의 행군에서의 승리, 갑무경비도로에서의 일행천리전술로 단행한 무산지구진공작전을 비롯한 항일무장투쟁사의 크고작은 전투들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안아왔다.

세상에는 장군도 많고 명장들에 대한 이야기도 적지 않지만 우리 수령님과 같이 총대에 의한 민족의 운명개척의 진로를 밝히시고 20대 초엽에 새형의 혁명적무장력을 창건하시여 백전백승의 강군으로 이끄신 절세의 위인은 일찌기 없었다.

그렇다. 장군형의 위인을 모실 때에만이 청소한 유격대로 창건된 군대도 백전백승의 위대한 강군으로 빛을 뿌릴수 있다.

우리는 선군혁명의 위대한 개척자, 백두산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한 력사의 페지를 읽으며 다음호실에로 참관로정을 이어갔다.

글 본사기자 김 준 혁
사진 본사기자 리 명 남

백두산지구에 울려퍼진 력사의 선언

주체57(1968)년 7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량강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하루동안에만도 여러 혁명전적지들을 찾으시어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며 실현해나가는데서 영원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만년초석

보천보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각이 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보천보혁명전적지를 돌아보니 감상이 어떤가고, 력사적사실에 맞게 꾸려진것 같은가고 심중하신 어조로 물으시였다.

한 녀성항일혁명투사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에 대하여 긍정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보천보혁명전적지가 력사적사실에 비해보면 너무 협소하게 꾸려진것 같다고, 전적지에 대한 해설도 폭이 좁게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전적지의 유적물과 자료들이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론증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어 그이의 음성이 장엄한 선언처럼 쩌렁쩌렁 울리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혁명전통입니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우리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입니다.

그이의 교시는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리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전적지건설의 근본원칙에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보천보혁명전적지는 수령님의 조국진군방침과 보천보전투에 대한 명확한 작전과 지휘를 보여주는 혁명사적을 기본으로 하여 꾸리고 여기에 다른 모든 자료들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그이의 교시는 보천보혁명전적지뿐아니라 모든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을 꾸리는데서 근본으로 삼아야 할 원칙을 밝혀준 고귀한 지침이였다.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보천보에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삼지연을 찾으시였다. 맑게 개였던 하늘에 꽃구름이 뭉게뭉게 피여오르고 가볍게 불어오는 미풍에 삼지연은 조용히 잔물결을 일으키고있었다. 감회가 깊으신듯 삼지연을 정답게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가를 천천히 거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삼지연은 수령님께서 친히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깊은 력사가 깃들어있는 의의깊은 고장이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웅장한 대기념비를 세워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려 한다고 하시였다.

모두가 환성을 올렸다.

그이께서 삼지연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꾸리실 그처럼 원대한 구상을 지니고계시는줄 몰랐던 그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당은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100% 계승하고 100% 실현하여 수령님께서 념원하시는대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을 100% 계승하고 혁명과 건설에 그대로 구현하실 그이의 철의 신념이 맥맥히 굽이치는 가르치심이였다.

그후 삼지연혁명전적지에는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편의 조각군상들, 혁명사적비 등으로 구성된 혁명사적대기념비가 훌륭하게 건립되게 되였다.

엄숙한 맹세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마루에 오르시였을 때 구름이 밀려가고 백두산의 웅장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며 맑은 천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천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그이의 옷자락은 가볍게 퍼덕이였다.

백두산과 연연히 잇닿은 조국의 산발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마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미술가가 있다 해도 백두산의 이 장엄하고 숭엄한 모습은 그대로 그리지 못할것이라고, 설사 백두산의 위용은 그릴수 있다 해도 백두산이 안고있는 소중한 이야기야 어떻게 나타내겠는가고 하시면서 백두산은 참으로 잊지 못할 곳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넘으신 혁명의 준령을 더듬으시는듯 백두산과 잇닿은 골짜기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시련에 찬 수십만리 로정입니까,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우리의 수령님께서만이 걸으실수 있는 길입니다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영광과 고난에 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로정을 회고하시며 하시는 그이의 교시는 일군들에게 각별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안겨왔다.

유서깊은 고장들을 한눈으로 둘러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심중에 차오른 격정을 누르시며 정말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그때 싸우던 투사들의 머리에는 벌써 흰서리가 내렸다고 하시면서 혁명은 계속된다고, 백두산에 오르니 혁명을 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영원히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빛내여나가시려는 백두산장군, 백두산의 아들의 엄숙한 맹세의 선언이였다.

본사기자 김 철 혁

인민의 심장속에 새겨진 어머니당의 모습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라면 열두자락 치마폭에 온갖 시름 안고있어도 어머니는 그것을 락으로, 행복으로 여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머니란 부름을 이 세상 가장 뜨겁고 진실한 사랑의 대명사로 존경을 담아 부르는것이리라.

우리 당이 그 어머니의 신성한 부름으로 떠받들리고있다.

어머니당-조선로동당!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을 품에 안아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뭉클 솟구치는 격정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사랑의 열도가 이 한마디에 다 담겨져있다.

돌이켜보면 피눈물의 12월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이 땅의 날과 달들은 무수한 세월도 줄 수 없는 정깊은 체험을 인민에게 주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우리 당사업에 철철 차넘친 잊지 못할 나날들이였다.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면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력사의 메아리를 불러온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설사 엄중한 과오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99%의 나쁜 점이 있고 단 1%의 좋은 점, 량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량심을 귀중히 여겨야 하며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깊은 말씀이 온 나라 가정에 울려퍼질 때 인민의 가슴마다에 격정의 대하가 사품쳤다.

세상 그 어느 정치인도 내세운적 없는 가장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신조를 인민은 보았다.

우리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 그 인민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크나큰 심장속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인민들을 받들어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은 그이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인민사랑의 강행군길에 뜨겁게 어려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큰물로 재난을 당한 인민들생각으로 잠 못 이루시며 온갖 조치들을 취해주시고도 주신 사랑 적으신듯 하늘길, 배길, 령길을 달리시여 머나먼 북변땅을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 세멘트가루와 흙먼지가 날리는 피해복구전투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라고, 라선시피해복구전투는 단순히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시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당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스러운 투쟁이라고.

당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스러운 투쟁, 진정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의 품이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의 삶과 행복을 따뜻이 보살피고 지켜주고있는것인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 먼지가 일고 비물에 진창이 된 건설장들과 물고기비린내가 확 들어찬 동해의 포구들에도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며 불멸의 화폭들, 인민들이 리용할 마식령스키장의 삭도에도, 시운전상태에 있는 려명거리 70층 초고층아빠트의 승강기에도 남먼저 오르신 사연들…

감격의 눈물, 뜨거운 심장이 없이 더듬을수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그 나날속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은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시기 전에 살뜰하고 정깊은 어버이의 모습으로 더욱 친근하게 새겨졌다. 이것이 인민의 심장속에 새겨진 우리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다.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인민의 어버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당은 어머니당으로 인민들의 끝없는 신뢰와 존경을 받고있는것이다.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이 천만심장에 따사로이 흘러들기에 인민은 우리 당을 영원히 어머니라 부르고부르리라.

본사기자 채 히 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캄보쟈왕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쎈 본트언 주조 캄보쟈왕국 특명전권대사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최희철 외무성 부상과 캄보쟈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당에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기풍이 차넘치게 하자

투철한 복무관점과 헌신적인 일본새

태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최근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창조물을 수많이 일떠세워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는 태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투철한 복무관점과 헌신적인 일본새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앞에 무한히 겸손하여야 하며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면서 인민이 바라는 일, 인민이 덕을 볼수 있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합니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의 투철한 복무관점과 헌신적인 일본새는 지난해의 충정의 70일전투때부터 오늘에 이르는 과정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군당위원회가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선차적인 힘을 넣은것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공사였다.

70일전투목표를 세우기에 앞서 군안의 일군들이 주민들속으로 들어간것은 잘한 일이다. 대중의 의견대로 군안의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큼직큼직한 건설대상들을 목표에 반영한것은 좋았다. 그런데 주민들이 늘 먹고 사용하는 기초식품이나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제들은 응당하게 반영되지 못하였다.

군당위원장 김송일동무는 이것을 군중관점이 바로서있지 못한 표현이라고 보았다.

목표를 다시 세우게 하자. 그 과정이 그대로 인민에 대한 투철한 복무관점을 세워주는 과정으로 되게 하자.

군당책임일군은 일군들을 다시 주민들속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에 그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일군이라면 결코 작은 문제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였으며 선후차를 가려 전투목표를 다시 완성하게 되였다.

결국 지방공업공장들에 대한 현대화공사는 다른 목표수행에 앞서 먼저 풀어야 할 사업으로 되였다.

군식료공장과 군종이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에 달려나간 군당일군들, 군급기관 일군들의 일본새는 현대화공사에 동원된 기술혁신돌격대원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그들의 생활상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주면서 기적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일군들의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은 그대로 높은 실적으로 이어졌다. 군식료공장에서는 된장생산공정과 장절임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콩우유생산설비와 과자생산설비, 각종 소독기구들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위생통과실들도 꾸려 식료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군종이공장에서는 제책과 책표지인쇄공정, 여러 설비들의 현대화를 다그쳐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빨래비누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하고 무동력보이라에 의한 가성소다생산공정도 새로 꾸려 가성소다를 자체로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군당일군들은 성과가 확대될수록 현대화공사에 대한 지원열풍도 세차게 일으켰다. 그 과정에 수지가공공장의 현대화도 빠른 기간에 실현되어 갖가지 수지용기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다.

군에서 기초식품들과 생활필수품들이 펑펑 쏟아져나오니 제일 기뻐한것은 군내인민들이였다.

군당일군들은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전투목표에 반영된 모든 대상건설들도 하나하나 모가 나게 해제꼈다.

군소년회관, 군영예군인편직공장을 비롯한 7개 단위의 건물들에 이어 군려관과 국수집, 은덕원 등의 보수를 현대적미감이 나게 진행하고 90여동의 건물들에 불장식을 특색있게 하여 거리의 밤풍경도 아름답게 부각시켰다.

이처럼 방대한 70일전투목표들을 기한전에 끝낼수 있은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바로 인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문제들부터 우선적으로 풀어준데 있다고 볼수 있다.

70일전투에 이어 200일전투에서도 군에서는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또다시 도적으로 소문을 냈다.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군당일군들은 헌신적인 일본새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켰다.

군소재지의 다층살림집들에 대한 방대한 개건보수공사때의 일이다. 공사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여 뒤떨어진 단위들이 일부 생겨났다.

현장을 돌아보면서 군당책임일군은 그 원인을 찾았다.

앞선 단위들에서는 파견된 군일군들이 전투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어려운 문제가 나서면 남먼저 어깨를 들이대는 헌신적인 일본새를 발휘하고있었다. 반면에 뒤떨어진 단위들에서는 일군들이 손쉬운 나누기식으로 일하고있었다.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였다.

군당책임일군은 뒤떨어진 단위 일군들로 앞선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당일군들을 파견하여 군중발동의 방법으로 뒤떨어졌던 단위를 앞선 대렬에 들어서게 하였다.

군당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전투장마다에서는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나 계획하였던 50여동의 다층살림집들에 대한 미장작업을 끝내고 외장재칠하기를 완성하여 거리의 면모를 더한층 일신시키게 되였다.

군당일군들의 불같은 헌신에 대한 실례는 많다. 군인민위원회일군들과 함께 군청소년체육학교를 한달만에 훌륭하게 꾸린 사실, 여러동의 큼직한 남새온실개건보수를 2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도록 한 사실, 읍지구의 유치원건설과 여러동의 다층살림집건설을 단숨에 해제낀 사실을 통해서도 군당일군들의 헌신적일본새를 엿볼수 있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올해에 들어와서도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할 높은 목표를 내걸고 대오의 앞장에서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결론은 명백하다. 인민이 따르며 존경하는 참된 복무자, 참된 충복이 되려면 이곳 당일군들처럼 인민들이 요구하는 긴절한 문제부터 풀어주라. 그리고 불같은 헌신으로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달라.

본사기자 장철범

문화후생시설을 잘 꾸려놓고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 초급당위원회에서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종업원들을 위한 복무관점의 높이를 보여주는 사실들은 많다.

그가운데서도 문화후생시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지게 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해 연구소에서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문화후생시설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종업원들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공사의 질을 높이는데 최대의 관심을 돌리였다.

이런 실례가 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목욕탕을 종업원들의 편의에 맞게 건설하도록 하기 위해 일군들의 모임을 열었다.

여기서는 많은 창발적의견들이 제기되였다.

한증칸의자의 일부 부분에 약간의 곡면을 지어주면 좋겠다는것, 열효률을 높일수 있게 난로를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자는것, 물탕크를 한증칸에 가깝게 접근시키자는것…

종업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하나하나가 다 특색이 있었다.

하지만 초급당일군은 여기에 만족할수 없었다. 그의 사색은 더욱 깊어갔다.

오랜 연구사들과 나이많은 종업원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수 있게 한증칸을 더 잘 꾸릴수 없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초급당일군은 많은 종업원들을 만나는 과정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의견을 받게 되였다.

한증칸에 먼적외선음이온발생타일을 붙이자는것이였다.

높은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먼적외선음이온발생타일을 붙이면 종업원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었다.

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자기들도 목욕탕을 손색없이 꾸리려고 여러가지 안을 내놓았지만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적지 않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일이였다.

《물론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귀중한 연구사들과 종업원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합니다.》

초급당일군의 말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은 일군들로 하여금 복무관점의 높이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소에서는 한증칸을 종업원들의 건강증진에 더욱 효과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꾸리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소장 정철동무를 비롯한 행정일군들도 연구사들의 기술과제수행을 늘 알아보며 적극 떠밀어주었다. 그 과정에 종업원들의 건강증진에 더 잘 이바지할수 있게 타일이 만들어지게 되였던것이다.

일군들의 복무관점을 보여주는 실례는 많다.

목욕탕에 찬물과 더운물탕크외에 적당한 온도의 물을 담아두는 탕크를 하나 더 설치하여 종업원들의 편의를 보장해준 이야기, 리발소와 미용실에서 더운물도 사용하도록 해준 이야기, 한겨울에도 종업원들이 더운방에서 식사를 할수 있게 식사칸에 폐열을 리용한 난방시설을 갖추어준 이야기…

이처럼 문화후생시설의 매 방들과 거기에 설치된 하나하나의 편의시설마다에는 종업원들을 위하는 이곳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뜨거운 진정이 깃들어있었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헌신하는 당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인민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리게 된다는것이다.

본사기자 최영길

대중의 목소리에서 일감을 찾으며

신포시 보주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몇해전 신포시 보주협동농장 살림집건설장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일부 농장원들속에서 의견이 제기되였던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리당위원장 박남길동무는 사연을 알아보기 위해 급히 건설장으로 달려나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의 요구, 대중의 목소리에 무한히 성실하여야 하며 언제나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으로 살며 일하여야 합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알아보니 일인즉 이러하였다.

살림집건설에 동원된 농장원들이 기초작업을 끝내고 한창 골조를 세운다, 블로크축조를 한다 하며 서로 경쟁적으로 기세를 올리고있을 때 일부 농장원들속에서 이런 의견이 제기되였다.

이왕이면 살림집구조를 좀 개조했으면 좋겠다는것이였다.

그들의 의견을 따르면 목재를 비롯한 일부 자재들이 더 많이 들어야 하였다.

농장에 건설용자재가 긴장한 조건에서 이것은 쉽게 결심할 문제가 아니였다.

리당일군에게 다가온 한 관리일군이 살림집설계를 수정하면 거기에 드는 자재가 문제로 되기때문에 이번만은 살림집건설을 그대로 내밀자고 하였다.

리당일군의 마음은 무거웠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 문제는 단순히 자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였다. 인민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과 태도문제, 멸사복무기풍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였다.

리당일군은 그 일군에게 단호히 말하였다.

인민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라는것은 당의 요구이다. 농장원들의 리익에 부합되지 않는 살림집을 백동 지으면 뭘 하고 천동 지으면 어디에 필요하단 말인가!

그러면서 설계를 대담하게 수정하자고 하였다.

그 일군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그후 리당일군은 실천적모범으로 일군들에게 참된 충복의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수많은 농장원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으며 살림집설계를 더욱 완성해나갔다. 또한 도의 해당 부문과 련계하여 설계를 확정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다녔다.

일군들도 그의 모범을 본받아 건설용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적극 떨쳐나섰다. 이렇게 되여 얼마후에는 수정된 설계대로 살림집들이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자기들의 기호에 맞는 새 살림집에 이사한 기쁨으로 어쩔줄 몰라하는 농장원들과 그 가족들을 보면서 일군들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다시금 뼈속깊이 새기게 되였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나 설계하고 건물을 하나 일떠세워도 농장원들속에 먼저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일을 전개하는 기풍을 확립해나갔다.

리문화회관과 상점, 진료소도 농장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그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훌륭히 꾸려졌다.

그러니 결론은 명백하다.

결코 자재문제가 아니였다.

본사기자 허일무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탄부들을 석탄증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서창청년탄광에서—
본사기자 찍음

즉시대책, 완전무결

▷ 원산시부재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종업원들을 친혈육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있는 원산시부재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멸사복무의 사업기풍에서 주목되는 점들이 있다.

즉시대책의 원칙

어느날 압연직장의 생산현장을 돌아보던 초급당위원장 김은철동무는 하나의 사실을 목격하게 되였다.

누구라없이 새로 받은 작업복과 솜신발을 일식으로 갖추고 작업에 열중하고있는데 유독 한 로동자만이 운동화를 신고있는것이였다.

《워낙 남보다 발이 크다보니…》라고 그는 범상하게 여기고있었지만 초급당일군은 스쳐지날수 없었다. 자기 사업의 빈구석을 느끼게 되였던것이다.

얼마전 공장에서는 압연직장의 로동자들에게 작업복과 솜신발을 일식으로 해결해주는 조치를 취해주었다. 그런데 공급사업을 맡은 일군들이 신발호수가 특별히 큰 그 로동자에게만은 솜신발을 해결해주지 못했다. 사방 뛰여다녔지만 그의 발에 맞는 솜신발을 끝내 찾지 못했다는것이였다.

종업원들을 위한다고 하였지만 매 사람들의 신체상특성까지 일일이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따라세우지 못한 자책감에 초급당일군은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곧 해당 일군들의 긴급모임이 진행되였다.

토의안건은 단 한가지, 한 종업원의 신발문제해결을 위한것이였다.

심각한 자책속에 잠겨있던 한 일군이 며칠후에 출장을 가는 길에 꼭 해결해오겠다고 하였다.

(며칠후에?)

초급당일군의 마음은 개운치 못했다. 모임이 끝나는 즉시 초급당일군은 어디론가 달려갔다. 원산신발공장이였다.

한 종업원의 신발을 해결하기 위해 땀흘리며 뛰여온 당일군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며 그 공장의 로동자들은 발벗고나섰다. 다음날 밤에 꼭 맞는 두툼한 두켤레의 솜신발을 받아안은 로동자는 뜨거운 것을 삼켰다.

공장일군들이 받아안은 충격역시 컸다.

완전무결의 원칙

언제인가 뜻밖의 무더기비로 한 종업원의 집이 크게 손상되였을 때였다.

긴장한 전투로 숨가쁜데 간단히 보수나 해주어 급한 대목을 넘기자고 하는 일군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초급당일군의 결심은 이렇게 섰다.

종업원들의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 일에 그 어떤 타산을 앞세우지 말자. 땜때기식으로가 아니라 더 완벽하게, 더 훌륭하게, 바로 이것이 인민을 위한 우리 일군들의 사업원칙이라고 생각한다. …

곧 낡은 건물을 통채로 들어내고 새 살림집을 일떠세우기 위한 통이 큰 전투가 벌어졌다. 살림집건설을 위한 돌격대가 조직되고 일군들이 직접 자재보장을 맡아나섰다. 친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정이 공사현장에 차고넘쳤고 짧은 기간에 그 자리에는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는 새 집이 번듯하게 일떠서게 되였다.

이것은 열백마디의 말을 대신하는 힘있는 정치사업이였다.

공장에는 따뜻한 혈육의 정이 흘러넘쳤고 종업원들은 일군들을 친부모처럼 따르게 되였다. 조직된지 오래지 않은 공장이지만 전투력이 강한 공장으로,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즉시집행, 완전무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일군들이 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구현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윤명철

화차수리전투장에 새겨가는
위훈의 자욱

평양차량수리공장 로동계급이 1.4분기와 4월 화차수리계획을 108.1%, 122%로 완수한 기세로 일터마다에서 련일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중요전선에서 제기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날에날마다 긴장한 전투를 벌린 결과에 이룩된 이 자랑찬 성과속에는 공장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당과 인민의 크나큰 믿음을 명심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장성강화되여온 주체혁명의 선봉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올해 태양절을 며칠 앞둔 어느날 공장으로는 10량의 화차가 들어왔다. 차검사를 진행한데 의하면 보름은 실히 걸려야 할 수리작업량이였다.

그러나 뜻깊은 태양절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충정의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로동계급은 새로운 위훈창조에 떨쳐나섰다.

태양절까지 화차들을 수리완성하여 떠나보내자.

누가 시켜서도, 계획을 미달해서도 아니였다. 오직 당을 받드는 충정의 마음이 그들스스로가 낮에 밤을 이어 긴장한 화차수리전투를 벌리도록 한것이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모든 직장, 작업반들에서 로동자들의 앙양된 열의가 전투승리에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이 진공적으로 진행되고 구체적인 전투조직이 있었다.

참모부서들에서 화차들을 검사하고 작업을 분담한 즉시 전투는 시작되였다.

차수리직장과 대차직장 등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울리는 설비들의 동음과 쉬임없이 튀어오르는 용접불꽃속에서 화차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모습은 그대로 불비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생산을 멈추지 않았던 전시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방불케 하였다.

공장구내에 게시된 《만리마속도》, 《결사관철》의 힘찬 글발들은 로동자들의 심금을 더 세차게 울려주었다.

전투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한 소재직장에서는 화차수리에 필요한 수십종에 수천개에 달하는 부속품을 자체로 생산보장하여 전투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철야전투가 진행되는 속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였다.

수리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정기중기가 멎어섰던것이다.

공장일군들은 천정기중기를 리용하는 작업을 제외한 다른 수리작업을 다그치도록 하는 한편 설비과와 공무직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이 고장요소를 제때에 퇴치하여 작업전반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화차수리의 기본부분을 지켜선 차수리직장과 대차직장의 로동계급은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차체수리작업과 차바퀴용착, 가공작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며 철야전투를 벌려 일정계획을 2배, 3배로 넘쳐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태양절의 하늘가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기 위한 화차수리전투로 들끓는 온 공장은 충정의 도가니로 화하였고 당을 받드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로동계급의 헌신의 구슬땀이 차량마다에 어려서인가 보름이 걸린다던 화차수리과제는 단 5일만에 완수되였다.

경사스러운 태양절 아침 공장로동계급은 자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든 화차들을 수송전선으로 떠나보냈다.

오늘도 평양차량수리공장의 전체 로동계급은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당이 맡겨준 그 어떤 전투임무도 훌륭히 완수할 일념으로 심장을 끓이며 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명춘길

양어발전에 이바지해가는 긍지

삼석종어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삼석종어사업소에서는 최근년간 해마다 새끼물고기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여 수백만마리의 새끼고기를 대동강에 놓아주고 구역안의 양어장들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 공급하고있다.

뜻깊은 올해에도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보다 큰 로력적성과를 안고 떳떳이 들어설 일념으로 새끼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얼마전 이곳을 찾았던 우리는 당의 양어정책관철을 위해 한마음한뜻이 되어 이악하게 노력함으로써 사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아놓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이야기를 감동깊이 들을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양어못들을 물고기의 종류와 생육단계에 맞게 배치하고 물고기기르기에서 물온도와 산소보장을 비롯한 과학기술적요구를 잘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어느날이였다.

당시까지만도 사업소에서는 건물안에 설치된 수십㎥의 물탕크에 양수기로 물을 계속 퍼올려 그아래에 있는 알깨우기공정에 보장하고있었다. 그런데 물고기알깨우기가 한창이던 때에 여러가지 원인으로 양수기가 자주 멎군 하였다. 만약 물을 계속 보장하지 못해 물고기알이 가라앉는다면 새끼물고기의 생산량을 떨어뜨릴수 있었다. 종업원들이 바께쯔를 비롯한 그릇들을 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긴장한 전투를 벌려 그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지배인 윤성렬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면 그때마다 계속 인력으로 물을 보장해야 하는가. 아니, 그 어떤 조건에서도 알깨우기공정에 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굳힌 지배인은 종업원들과 마주앉아 해결방도를 토론하였다. 그 과정에 알깨우기공정을 통채로 새끼고기못옆에 있는 엄지고기못속으로 옮기자는 안이 나왔다. 그렇게 하면 새끼고기못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정제하여 알깨우기에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었다. 또한 엄지고기못속에 알깨우기기계를 들어앉히는것으로 하여 물온도에서의 변화가 거의 없어지게 되므로 새끼고기생산에 매우 리상적이였다.

이렇게 되여 사업소에서는 알깨우기사업을 적기에 중단없이 내밀게 되였다.

하지만 알깨움률을 높인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니였다. 품들여 깨워낸 새끼고기들의 사름률을 높여야 양어장들에 더 많이 보내줄수 있었다.

일군들은 이를 위해 새끼고기못들의 소독문제와 새끼고기들의 먹이문제를 중요하게 틀어쥐고 내밀었다. 우선 소독용원료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해 앞채를 메고 뛰는 한편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도록 앞장에서 이끌어나갔다. 이와 함께 못주변의 여러 개소들에 두엄에 의한 미생물발생장들을 특색있게 꾸려 새끼고기먹이문제도 해결하였다.

사업소에서는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보급실을 실정에 맞게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할뿐아니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종업원모두가 높은 과학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사업도 근기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우리 나라를 양어의 나라로 만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관철할데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길수록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양어를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실지 덕을 주는가 못주는가 하는것이 바로 나라의 양어발전의 중요한 초소를 지켜선 우리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배인 윤성렬동무가 하는 말이였다.

지금 이곳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양어를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가 차례지게 하려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갈 신심에 넘쳐 올해에 높이 세운 새끼물고기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애국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영민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최상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갖춘 멋쟁이교사

김일성종합대학 3호교사를 돌아보고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 또 하나의 경사가 났다.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현대적인 교사가 멋들어지게 일떠선것이다.

만사람의 축복속에 려명거리의 궁궐같은 살림집을 하루아침에 천수백세대나 받아안은데 이어 모든 조건과 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춘 훌륭한 3호교사에서 교육사업과 학습을 하게 되였으니 지금 대학 교육자들과 학생들의 가슴속에는 충정과 보답의 열기가 활화산마냥 날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이 중시하는 시대적과업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중심으로 하여 거대한 대학촌을 이룬 룡남산지구가 당의 은정속에 최근년간 눈에 띄게 변모되고있다.

국제경기도 치를수 있는 최상급의 수영관과 현대적인 전자도서관이 건설된데 이어 2호교사의 외부가 훌륭하게 개건되였으며 오늘은 인쇄공장과 3호교사가 자기의 자태를 온 세상이 보란듯이 드러냈다.

만리마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며 일떠서는 멋쟁이건축물들인 화학부교사와 4호교사, 15호기숙사도 이제 머지않아 문을 열게 될것이니 룡남산지구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대학촌으로 하루가 다르게 자기의 모습을 일신해가고있다.

모두의 놀라움－궁전인가, 교사인가

지난 9일에 진행된 개교모임후 새 교사로 들어서던 대학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 학생들은 선뜻 발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독특한 모양새를 갖춘 건물의 외형도 눈길을 끌었지만 내부 또한 그에 못지 않게 황홀하게 꾸려져있었기때문이였다.

연건평이 7만여㎡에 달하는 3호교사는 크게 3개의 호동으로 이루어져있다. 우에서 내려다보면 1호동은 Y자형으로 되여있으며 2호동은 6각형모양이고 3호동은 직선형태이다. 정면에서 바라보아도 매 호동들의 높이와 모양은 서로 각이하다.

이처럼 완전히 다른 모양새를 갖춘 3개의 건물이 일직선상에 나란히 붙어있는것으로 하여 3호교사는 멀리서 척 보기만 해도 누구에게나 류다른감을 안겨주는것이다.

그런데 내부에 들어서면 더욱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된다.

유리를 비롯한 특색있는 마감건재들로 장식한 란간에 손을 얹으면서 연마화강석을 입힌 계단을 따라 올라가느라면 희한하게 꾸려진 복도가 눈앞에 나진다.

은근하면서도 무게있는 색타일들로 장식한 복도바닥과 아크릴계칠감, 유리칸막이 등으로 처리한 벽면들, 여러가지 장식효과들을 부각시켜줄수 있도록 화려한 무리등을 비롯한 각종 조명등을 조화롭게 배치한 천정, 웃층과 아래층사이를 터놓은 관통홀들과 매 호동들의 련결부위에 자리잡은 학습홀들…

참으로 복도에 들어서는 첫 순간부터 눈앞에 보이는 모든것이 새롭고 특색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찬탄의 목소리는 비단 여기에서만 터져나온것이 아니였다.

계단강의실들과 종합강의실들을 비롯한 강의실들과 실험실습실들은 더더욱 훌륭하였다.

칠판이 있는 앞벽면중심과 옆벽면들의 일부, 바닥을 푸른색으로 처리하고 같은 색의 멋진 의자들도 수백개나 갖추어놓음으로써 눈의 피로를 훨씬 덜어줄수 있도록 꾸려진 1호동의 계단강의실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강의실들과 복도와 잇닿은 벽면을 화려한 장식유리로 처리한 실험실습실들은 조형예술적으로 흠잡을데 없이 완벽하였다.

하기에 교사의 주인들인 교육자들과 학생들은 물론 참관자들도 궁전인지, 교사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새 세기가 요구하는 본보기교사가 과연 어떤것인가를 실물로 보았다고 하면서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렇다. 룡남산기슭에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 3호교사는 건축미학적으로나 조형예술적으로 손색이 없는 시대의 걸작품, 기념비적건축물이였다.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일떠선 본보기교사

법률대학과 수학부, 력학부, 물리학부, 정보과학대학, 전자자동화학부가 자리잡고있는 3호교사는 1 000여개의 크고작은 방들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에는 수백석규모의 계단강의실들을 비롯한 340여개의 강의실들과 실험실습실들, 400여개의 강좌실들과 연구실 등이 전개되여있으며 개발실, 진료실, 도서실, 전자자료봉사실 등도 자리잡고있다.

수많은 출입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불편없이 드나들수 있으며 어느 한곳으로 들어가도 3개 호동의 임의의 장소에 가닿을수 있도록 되여있는것이 이 교사의 특징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과외학습에 도움을 줄수 있는 학습홀들과 밝은 색갈의 의자와 화분들이 놓여있는 복도홀, 5대교양과 첨단과학기술학습에 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가지 형식의 벽적판물들, 학습장과 펜을 형상한 그림을 새겨넣은 승강기 출입문들을 가는 곳마다에서 볼수 있다.

교사의 내부도 그러하지만 교사의 바깥환경도 그에 못지 않다. 6각형모양으로 건설된 2호동의 내정에는 록음우거진 공원이, 교사의 뒤쪽에는 인공잔디를 입힌 소축구장과 롱구장, 배구장이 여러개나 꾸려져있다.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던져주고 수많은 돌의자들과 나무의자들, 간단한 운동기재들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 놓여있는 수만㎡의 공원화된 교사주변의 풍치 또한 이를데 없이 훌륭하였다.

교육자들과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환경을 마련해주는 이처럼 훌륭한 교사를 우리 과연 어디에 가서 또 볼수 있단 말인가.

하기에 첫 강의를 받던 날 학생들이 현대적인 극장들의 관람석 못지 않게 푹신하면서도 멋진 의자들에 앉아 팔걸이속에 들어있는 책판을 꺼내보며 그토록 좋아하던 모습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것 같다고 하며 정보과학대학 실장 김원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학술교류를 위해 우리 대학 교원들이 자주 외국에 다녀오군하지만 이처럼 훌륭한 교사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정문밖을 나서면 궁궐같은 살림집이 어서 오라 반겨맞고 대학에 들어서면 멋쟁이교사가 문을 열고 기다리니 요즘은 정말이지 꿈속에서 사는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에 조금이나마 보답할수 있겠는지…》

그의 말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룡남산아들딸들의 가슴속에 끓어넘치는 격정과 환희, 충정과 보답의 열기를 다시한번 뜨겁게 안아볼수 있었다.

21세기의 에네르기절약형건물

교사의 곳곳에 설치되여있는 그리 크지 않은 설비들이 자주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알고보니 건물의 실내온도를 조절해주는 현대적인 설비들이였다.

우리와 만난 대학일군은 교사에 그런 랭난방설비들이 1 000여대나 있다고, 매 호동들에 설치되여있는 열뽐프와 련결된 그 설비들이 여름에는 실내온도를 낮추어주고 겨울에는 반대로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 설비들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창문들의 아래부분에 모두 설치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 높일수 있도록 되여있다고 하는것이였다.

듣고보니 정말 그러하였다.

누구나 알다싶이 고층건물들에서 대기온도영향을 제일 크게 받는것은 다름아닌 창문들이다. 바로 여기에 랭난방설비들을 배치함으로써 계절에 따르는 실내온도를 더욱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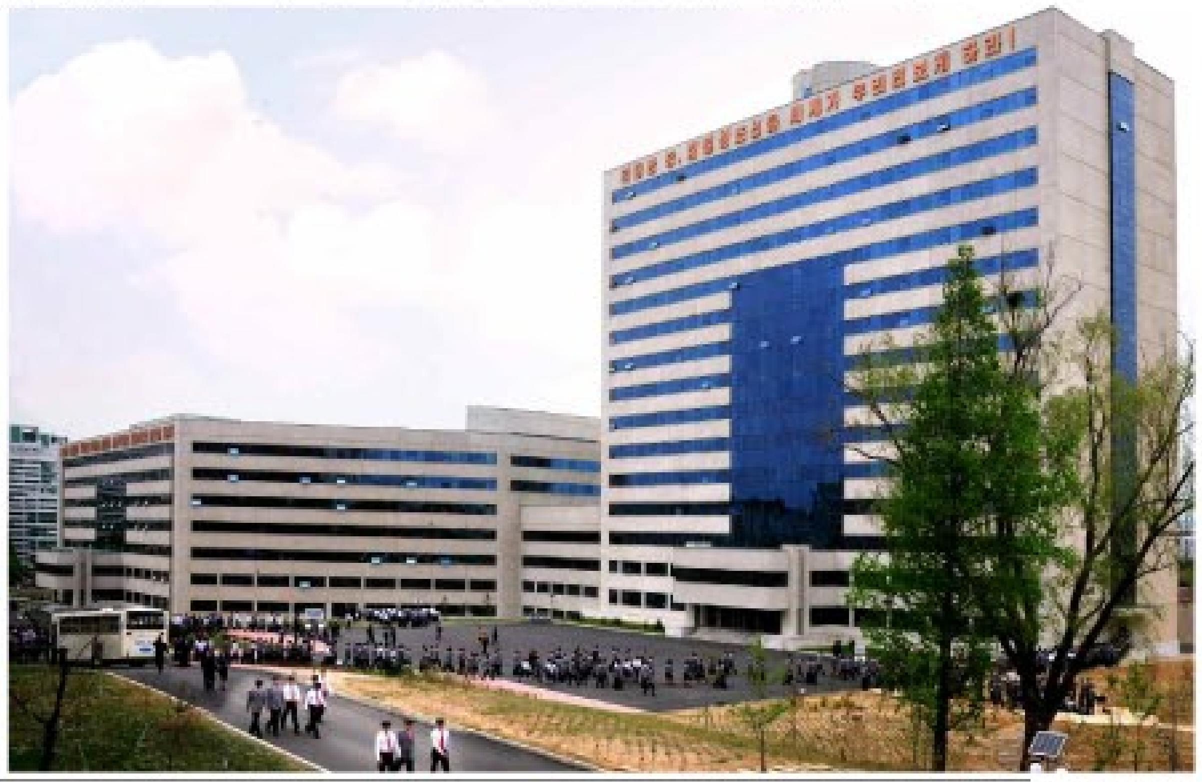
교사벽체의 바깥면들은 질좋은 보온제를 붙여 시공하고 창문들이 있는 부분에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국산화한 열선반사유리를 전반적으로 설치함으로써 건물의 외부장식효과도 높이면서 동시에 실내온도보장을 위한 에네르기를 최대로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그렇게 해놓은 결과 전력을 전혀 쓰지 않아도 일반건물들에 비해 실내온도가 크게 차이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참으로 3호교사는 돌아볼수록 새 세기가 요구하는 에네르기절약형건물로서의 특색을 완벽하게 살린 현대적인 건물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

바로 이처럼 건축미학적으로나 조형예술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교육학적요구에 비추어볼 때도 전혀 손색이 없는 21세기의 에네르기절약형건물인 현대적인 교사에서 우리의 룡남산아들딸들이 세계를 굽어보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억센 병장들로, 최첨단돌파전의 1번수들로 자라나고있다는 생각에 가슴벅차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 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력사의 증견자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의 려명이 밝아오는 성지로 찬연한 빛을 뿌리며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나가고있는 김일성종합대학과 더불어 우리 조국이 머지않아 세계의 상상봉에 우뚝 솟구쳐오를것이라는 확신에 넘쳐 우리는 교문을 나섰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경철



전국수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전국수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16일과 17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원산수산대학, 남포수산대학, 수산성 수산연구원, 강원도수산관리국을 비롯한 10여개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등 150여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수산분과와 양어분과로 나뉘여 진행된 발표회에는 140여건의 가치있는 론문들이 제출되였다.

참가자들은 과학수산이자 물고기잡이실적이라는 당의 뜻을 받들고 수산물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한 성과와 경험들을 발표하였다.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어장탐색과 해상지휘, 물고기잡이 등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며 로력절약형양어, 물절약형양어를 비롯하여 양어의 주체화,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메기종합먹이첨가제 〈영광1〉호생산의 국산화와 첨가제적용효과》, 《바다나물양식용보실잡는기구》, 《조임식투망》, 《물고기면역강화제 〈원동1〉호의 적용효과》, 《물고기병진단지원체계 〈진단1.0〉》, 《도루메기를 주원료로 하는 물고기햄》 등 많은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회기간에 《양어용생물먹이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의도 있었다.

17일에 있은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이번 발표회는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과학수산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물고기잡이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동하는 계기로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도서를 통한 위대성선전을 잘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든다.

－선교구역출판물보급소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기술혁신의 열풍속에 공사성과 련일 확대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216사단 618건설려단 자강도련대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백두산종합박물관건설에 참가한 이곳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짧은 기간에 기초굴착을 끝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합리적인 시공방법들을 적극 도입하여 기초콩크리트치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앞선 건설공법들을 도입하는데서 찾은 지휘관들은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불러일으키고 시공의 전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이 과정에 조립속도를 높일수 있는 철근고정틀에 의한 뒤틀조립방법을 비롯한 합리적인 방안들이 창안도입되여 공사에서 최상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면서도 많은 건설자재를 절약하게 되였다.

대중적기술혁신의 열풍이 차넘치는 전투장에서 날에날마다 새 기준, 새 기록이 창조되는 속에 방대한 량의 기초콩크리트치기공사가 65%계선을 돌파하였다.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물동량의 운반거리를 단축하고 로력, 시간을 절약할수 있는 공법을 비롯하여 대담하고 기발한 혁신적인 방안들을 련이어 내놓고있다.

라진－울라지보스또크 국제관광선 《만경봉》호 출항

라진－울라지보스또크 국제관광선 《만경봉》호가 조로 두 나라 공동으로 운영되게 된다.

《만경봉》호출항식이 17일 라진항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라선시인민위원회, 관계부문 일군들과 청진주재 로씨야련방 총령사를 비롯한 로씨야손님들, 관광객들이 참가하였다.

출항식에서는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이어 《만경봉》호는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며 울라지보스또크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만경봉》호가 라진－울라지보스또크 국제관광선으로 운영되게 됨으로써 두 나라사이의 해상교통운수뿐아니라 경제협조와 관광업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할수 있게 되였다.

영국에 가는 평양장애자교류단 출발

김문철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양장애자교류단이 영국에서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 1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역에서 정현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주조 유럽동맹협조대표부 성원들이 전송하였다.

2017년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인디아의 뉴델리에서 진행된 2017년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17일 귀국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김한성선수는 남자자유형 61㎏급경기에서, 김선향선수는 녀자레스링 48㎏급경기에서 각각 2위를 하였으며 리신명선수는 남자고전형 59㎏급경기에서, 정명숙선수는 녀자레스링 53㎏급경기에서 각각 3위를 하였다.

평양역에서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이 선수들을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어

량강도안의 일군들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량강도안의 일군들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문명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담보되며 우리 국가의 미래는 교육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새 학년도를 맞으며 도안의 대학입학생들에 대하여 료해하던 도당책임일군은 그들을 위한 사업은 협의회를 하고 조치나 하는것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품을 들여야 할 사업이라는것을 자각하게 되였다.

혜산시와 여러 군들의 책임일군들과 마주앉은 도당책임일군은 새 세대들을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능력있는 인재들로 키우는 사업은 조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당조직들에서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며칠후 김정숙사범대학을 찾은 도당책임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새겨진 교육방법연구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대학의 교육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다음날 혜산외국어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한 학생의 집을 찾은 책임일군은 친부모의 심정으로 마련한 체육복, 내의, 구두, 학용품들을 안겨주면서 공부를 잘하여 조국의 미래를 키워가는 유능한 교육자가 되라고 따뜻이 고무해주었다. 영웅혜산제1중학교를 졸업하고 혜산의학대학에 입학한 한 학생을 만나서도 도당책임일군은 학과학습에서 언제나 모범이 되여 당의 보건정책을 맨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만리마시대의 참된 의료일군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김정숙사범대학을 찾았던 김정성동무를 비롯한 도당일군들은 한 신입생의 아버지가 영예군인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며칠후 신입생의 가정을 찾아 그의 아버지의 건강상태와 집안살림살이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본 김정성동무는 곰열을 비롯한 약재들과 학용품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김정숙사범대학 기숙사를 찾은 그는 집을 멀리 떠나 공부하는 학생들의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 학습을 더 잘하자면 어떤 교육기자재와 설비들이 필요한가를 하나하나 알아보았다. 또한 도당일군들은 신입생들이 학습하는 강의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들로 더욱 훌륭히 꾸리는데 필요한 10여대의 콤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설비들도 갖추어주었다.

대홍단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기둥감들인 대학입학생들을 위하여 대홍단혁명사적관에 대한 참관사업을 의의있게 조직하였다.

군당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직사업에 따라 진행된 대홍단혁명사적관 참관사업을 통하여 대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백두삼천리벌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 충정의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김형직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을 비롯한 일군들도 대학입학생들의 가정을 찾아 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었다.

혜산시당위원회 책임일군을 비롯한 일군들은 시안의 수많은 대학입학생들을 위해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준비하는 사업을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었다.

량강도광업련합기업소 지배인 허성훈동무도 한 로동자의 가정을 찾아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축하해주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었다.

이들만이 아니다.

대학입학생들에게 필요되는것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사업수첩에 적어가며 조치하고 총화하며 당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내밀어준 강신창, 오경춘, 고재길, 홍두용, 김영남동무를 비롯한 도안의 여러 군당위원회 일군들…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우리 당 교육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기 위하여 도안의 일군들은 대학입학생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데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만포객화차대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만포객화차대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객화차수리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1.4분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5월에 들어와서도 객화차수리실적을 부쩍 끌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 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객화차대의 일군들은 객화차의 수리정비를 질적으로 하고 수리기일을 앞당겨 보장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인민군대식으로 패기있게 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들끓는 현장에 깊이 들어가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객화차대의 모든 중대들에서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사장되여있던 내연기관차를 차갈이용전기기관차로 개조한것을 비롯하여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객화차수리에서 련일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화차중대에서는 수리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기술학습에 힘을 넣어 화차수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고있다.

수리공들은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에 심장으로 대답하며 화차수리에서 종전의 기록과 실적을 갱신해나가고있다.

객차중대에서는 룬형기중기와 압축기를 비롯한 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대차해체작업과 마모된 부속품들에 대한 교체 및 재생, 제동검사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있다.

또한 서로의 힘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차바퀴용착설비를 자체로 제작하여 불량차바퀴들의 수리기일을 앞당기고있다.

중대에서는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객차수리기일을 단축하고있다.

준비중대의 로동자들은 부족되는 자재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하여 객화차중대들에 보내줌으로써 수리기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렬차검사중대들에서는 한개 렬차다루기공정표의 요구대로 도착, 출발렬차들에 대한 기술검사를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홍

푸른 숲을 가꾸어가는 뿌리가 되여

강동군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 김종수동무

지난 3월초에 진행된 평양시적인 산림감독원들의 총화모임에서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은 한 감독원이 있다.

그가 바로 근 20년간 누가 보건말건 푸른 숲에 애국의 땀방울을 묵묵히 바쳐가고있는 강동군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 김종수동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이고 온 나라를 숲이 우거진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기 위하여 한대의 나무라도 더 심고 아끼고 가꾸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전 어느 봄날 송가지구 제령산으로 한 제대군관이 땀을 흘리며 오르고있었다. 최전연에서 군사복무를 하다가 제대되여 이곳 산림감독원으로 배치된 김종수동무였다.

며칠째 높고낮은 산발들을 오르내리며 산림조성실태를 료해하는 그의 눈앞에는 벌거벗은 무림목지들이 가슴아프게 안겨왔다.

(내 한생을 다 바쳐 고향의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 후대들에게 물려주리라.)

이런 결심을 안고 그는 산림감독원의 첫시작을 떼였다.

180여정보나 되는 무림목지들에 산림을 조성하자면 무엇보다도 많은 나무종자가 필요하였다. 김종수동무는 다음날 지체없이 은산군으로 떠났다.

자전거로 수백리길을 달리느라니 힘에 부쳤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군사복무의 나날 부대에 찾아오시여 앞으로 주변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라고 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해빛같은 모습이 안겨와 새 힘이 솟구쳐올랐다. 그는 20여일간이나 한지에서 잠자로 끼니를 에우면서 수십㎏의 이깔나무종자를 마련해가지고 달려왔다. 그리하여 그해에 벌써 15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여 40여정보의 무림목지에 심었다.

그 나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해 봄날 아침밥을 짓기 위해 집문을 나서던 리영순녀성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남편이 터밭에 앉아 무엇인가 심고있었기때문이였다.

《여보, 우리 올해부터 여기에다 나무모들을 심어가꾸면서 경험을 쌓아가기요.》

김종수동무는 이렇게 자기 집뜨락에 나무모밭을 꾸려놓고 한그루한그루 애어린 나무모들에 정성을 쏟아부었다. 그는 매일 수십리길을 걸으며 담당한 산림구역에 심은 나무들의 사름률을 알아보느라 늘 산판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어느해 가을날에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못해 그를 찾아 산판을 헤매던 가족들은 소태풀안의 둔덕진 돌바위짬에 나무모를 심고있는 김종수동무를 발견하게 되였다.

그날 이런 곳에도 꼭 나무모를 심어야 하는가고 묻는 아들 금성이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여기도 조국땅의 한 부분이다. 이제 이 나무들이 자라 무성한 숲을 이루면 우리 조국산천은 황금산, 보물산으로 더욱 아름답게 전변될것이다. …

하기에 김종수동무는 몇해전 금성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는 바로 그날에도 아들과 함께 제령산으로 올라 나무를 심으면서 그에게 애국의 마음을 깊이 심어주었다.

이뿐이 아니다.

숲사이나무모밭을 꾸려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할것을 결심한 김종수동무는 산리용반원들과 함께 거름배낭을 지고 쉬임없이 산으로 올랐다. 이렇게 숲사이나무모밭을 품들여 꾸려놓은 그는 해마다 50만그루의 나무모들을 키워냈다. 그리고 순환식으로 채벌한 구역들에 대한 나무심기를 적극 따라세웠다.

김종수동무는 산림조성과 함께 그 보호사업에도 남모르는 땀과 열정을 바치였다.

그는 《산림애호》, 《산불금지》 표식판을 비롯한 각종 표어들을 만들어 산지들에 게시하였으며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이 군중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역안의 수백개 단위들과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업도 활발히 벌려나갔다.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산림조성과 보호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온 김종수동무, 이 나날 그는 28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정성껏 키워 송가지구는 물론 주변지역들에까지 보내주었고 주요건설장들과 탄광들에 3 000여㎥의 통나무와 갱목을 보장할수 있게 해주어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였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그가 근 20년간 심고 가꾸어온 780여정보의 산에 오늘은 무성한 숲이 푸르러 설레이고있다.

하기에 이곳 사람들은 푸른 숲을 가꾸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해오고있는 그를 가리켜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애국자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일

열렬한 향토애를 지니고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자

인민의 명승지를 가꾸어가는 보람

중구역 모란봉청년공원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우리 인민 누구나 즐겨찾는 모란봉.

평양의 자랑, 나라의 자랑으로 유명한 모란봉은 마치 모란꽃과도 같이 생김새가 특이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기묘하고 조화로운 산생김, 짙은 록음과 철따라 곱게 피여나는 갖가지 꽃들, 그 모든것이 하나로 어울려 모란봉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답다.

특히 예로부터 평양8경의 하나로 일러오는 을밀대의 봄맞이나 부벽루의 달맞이는 모란봉의 경치가운데서도 뛰여난것으로 알려져있다.

얼마전 모란봉을 찾았던 우리는 약동하는 봄계절의 환희를 안고 신심과 랑만에 넘쳐 인민의 명승지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중구역 모란봉청년공원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나가는 애국헌신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모란봉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꽃바구니, 꽃의 동산을 련상케 했다.

산마루와 골짜기, 푸른 숲과 잔디밭, 길가의 곳곳에 특색있고 보기 좋게 꽃고루 배치되여 활짝 피여난 각종 꽃식물들, 최승대와 을밀대주변, 모란봉의 서록기슭을 따라 만발한 꽃들은 서로 경쟁이나 하듯 갖가지 아름다운 색과 모양으로 모란봉의 경치를 더욱 뛰여나게 하였다.

모란봉을 각양각색의 꽃들이 만발한 인민의 유원지로 가꾸어가는 이곳 종업원들의 정신세계와 숨은 노력에 절로 터져나오는 탄성과 기쁨을 금치 못해하는데 지배인 장원복동무는 격정에 넘쳐 이야기했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는 해방후 몸소 여러차례 이곳에 오시여 모란봉을 근로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장소로 더 잘 꾸리도록 하여주시고 끝없는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0월 모란봉에 오르시여 평양시전경을 부감하시며 모란봉을 인민의 유원지로 꾸리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3월 모란봉에서 우리 조국의 푸른 숲의 새 력사를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고 재더미만 남았던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에도 모란봉을 훌륭한 인민의 휴식터로 꾸리실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모란봉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인민의 공원으로 되였다.

모란봉청년공원이 시작되는 곳에서 우리와 만난 책임기사 김용철동무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종업원모두가 인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주기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애국헌신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수도시민들이 기쁨에 겨워 웃고 떠들고 춤추고 노래할 때 이곳 관리소 종업원들은 모란봉의 꽃밭들과 꽃관목들, 잔디밭들과 나무들, 산보길들과 옛 성터들, 정자들에 사랑과 정을 쏟아붓고있다.

그들속에는 제대배낭을 메고 달려온 그때부터 재배공, 관리공으로 모란봉의 한떨기의 꽃, 한그루의 나무마다에 진한 땀을 바쳐온 지배인 장원복동무도 있으며 처녀시절부터 수십년동안 해마다 계절을 앞당겨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온 원림전람관작업반장 고숙련동무와 원명철, 최광실동무들도 있다.

그런가하면 최승대작업반과 청류벽작업반, 원림전람관작업반과 청년공원작업반, 을밀대작업반과 온실작업반을 비롯한 이곳 종업원들은 일년사시절 모란봉의 산보길, 옹벽들과 옛성터주변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지난해 충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 이어 오늘에도 이른아침 모란봉에 올라 담당구역을 청소하고 꽃관목가꾸기, 잔디깎기와 뿌리목정리, 생울타리전정과 나무모양잡기 등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는 일을 찾아하는것이 이들의 어길수 없는 일과로 되고있다.

뜻깊은 올해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계절을 앞당겨 활짝 피워 모란봉을 찾는 사람들을 한껏 기쁘게 하였다.

작업반장 고숙련동무를 비롯한 원림전람관작업반원들은 지난 겨울부터 화창한 이날까지 한포기한포기의 꽃들을 온갖 정성을 쏟아부어 애지중지 가꾸었고 온실작업반장 박성심동무는 작업반원들과 함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한겨울의 강추위속에서도 실하고 튼튼한 수많은 꽃모들을 자래웠다.

청년공원작업반의 박춘영, 리주혁동무들과 청류벽작업반 림정실, 김정복동무 그리고 을밀대작업반의 최정근, 김광혁, 주복미, 로정숙동무들과 최승대작업반의 박금녀, 유명란동무를 비롯한 관리소안의 전체 종업원들은 모란봉의 곳곳에 갖가지 꽃들과 꽃관목들을 더욱 조화롭고 향기그윽하게 피우고 푸른 숲 우거지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것을 다 바쳤다.

모란봉청년공원입구로부터 이르는 곳마다에 펼쳐진 꽃바다를 보며 누구나 기뻐할 때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말없이 이어가고있는 중구역 모란봉청년공원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모란봉에 갖가지 꽃들을 더욱 활짝 피워가려는 숭고한 지향과 애국의 마음을 안고 묵묵히 한모습으로 모란봉의 아름다움을 가꾸어가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사상정신세계는 그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것인가.

온갖 꽃들이 만발한 모란봉에서 우리는 눈비내리나 찬바람부나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순결한 마음으로 받들어가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를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본사기자 김치곤

수도의 위성도시에 향기 넘친다

사리원시화초사업소 종업원들

봄계절은 꽃계절이다.

화창한 계절과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지는 자연경개도 좋지만 사람들의 정성이 깃든 온갖 화초들로 단장된 거리와 마을, 공원들의 꽃풍경은 또 얼마나 풍만한 정서를 자아내는것인가.

우리는 얼마전 꽃의 도시로 자랑스럽게 변모되어가고있는 수도의 위성도시 사리원시에서도 그것을 한껏 안아볼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도시민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이 갖가지 아름다운 꽃을 가꾸며 문화적인 환경에서 고상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자는것이 당의 의도이고 결심입니다.》

곳곳에 펼쳐진 다채로운 꽃풍경이 도시의 운치를 더해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모신 상매산언덕이며 민속거리와 공원들, 육아원과 애육원, 도예술극장, 백화점 등 중요건물들과 꽃향기넘치는 거리와 마을들…

《지난해와는 또 다른 사리원시의 풍경이요.》

사리원시를 찾아온 손님들인듯 한 서너명의 사람들이 걸음걸음 펼쳐지는 꽃풍경앞에서 흥그러워지는 마음을 금치 못했다. 거리에 피여난 화초들의 이름만 알아도 원예지식이 높아날것 같다고 하는 처녀들의 목소리는 또 얼마나 유쾌한가.

거리의 풍경이 이럴진대 그 꽃모들을 키워내는 사리원시화초사업소의 꽃풍경은 더 볼만할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발걸음도 가벼이 그곳으로 향하였다.

주변경치와 어울리게 자그마한 하천기슭에 자리잡은 화초사업소는 한폭의 그림같았다. 우리는 현장에서 화초사업소 부원 박회철동무를 만났다.

그는 해마다 꽃품종을 늘이고 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소종업원들의 열의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를 온실로 이끌었다.

온실로 들어서는 우리의 눈앞에는 시내에서 보던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안겨들었다. 너무도 어린것들이여서 그 품종조차 가려볼수 없는 모들이 일매지게 펼쳐져있었던것이다.

의아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는 우리를 한동안 바라보던 박회철동무가 말하는것이였다.

《우리 사업소의 꽃풍경이야 이미 시내에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이어 그는 사업소의 화초재배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사업소에서는 화초를 한해에 3~4번정도 재배하게 되는데 현재 거리에 피여난 꽃들은 씨네라리아, 금잔화, 애기국화, 삼색제비꽃을 비롯한 화초로서 이미 겨울부터 자래운 꽃들이였다.

그 꽃들이 질무렵에는 새로 키워낸 꽃모들을 심어 봄부터 가을까지 시내에 꽃을 활짝 피우고있었다.

이들이 정성을 다해 피워가는 그 꽃송이들에는 과연 어떤 마음이 깃들어있었던가.

온 나라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을 활짝 피워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쉬임없는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윽한 꽃향기속에서 잠시나마 피로를 푸시기를 바라는 고결한 충정과 불같은 소원이였다.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받으시면서도, 외국방문의 나날 이역의 들가에 피여난 꽃을 보시면서도 언제나 자신보다 우리 인민을 먼저 생각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이 꽃잎마다 어려있다.

돌이켜보면 사리원시를 꽃의 도시로 만들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래서이리라. 이 땅에 피여나는 꽃이 그토록 아름답고 끊임없이 활짝 피여나는것은.

바로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념원이 뜨겁게 어려있고 우리 인민의 충정의 마음이 소중히 깃들어있어 수도의 위성도시 사리원시에 펼쳐진 꽃풍경도, 그와 함께 흘러가는 생활의 정서도 그리도 아름다운것이다.

본사기자 신현규

자랑많은 학교

력포구역 추당고급중학교는 구역안의 일군들과 주민들속에 《봉선화학교》로 널리 알려져있다.

그것은 이 학교의 교원들과 학생들이 자체로 마련한 봉선화꽃씨를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과 만경대혁명사적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인민군부대들에 보내주고있기때문이다.

이곳 학생들과 교원들이 자기들이 직접 심고 가꾼 봉선화꽃씨를 안고 애국의 길을 걷기 시작한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이였다. 한생을 교단에 바쳐온 김리라동무가 나어린 소학반학생들과 함께 걷기 시작한 애국의 길을 오늘은 온 학교의 학생들이 걷고있다.

올해에도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일떠선 새 학교에서 새 학년도를 맞은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의 소학교학생들에게 자기들이 가꾼 봉선화꽃씨를 보내주었다.

김리라동무와 함께 봉선화를 활짝 피우기 시작한 그 소학반의 학생들이 어느덧 고급중학교졸업을 앞둔 학생들로 성장하였다. 그들이 당이 부르는 초소들로 달려나가면 《봉선화학교》의 자랑이 되고 조국을 떠받드는 기둥이 되리라.

본사기자

새 품종의 잔디를 육종하기 위해 지혜를 합쳐간다.
—원산잔디연구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꽃집》에 넘치는 생활의 정서

‖ 선천군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로동자 차정국동무의 가정 ‖

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꽃을 사랑하였으며 가정과 마을들에 화분과 꽃밭을 만들어놓고 즐겨 가꾸어왔다.

꽃을 떠나 어찌 아름다운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으며 우리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문명하게, 문화적으로 꾸려나갈수 있으랴.

참으로 꽃은 가정의 향기, 사회의 향기를 더 짙게 하여주는 우리 생활의 한 부분과도 같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은 꽃을 사랑하고 꽃속에서 살아야 래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에 넘쳐 생활을 아름답게 꾸려나갈수 있습니다.》

선천군 월천리에 가면 사람들속에서 《꽃집》으로 불리우는 가정이 있다.

선천군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서 로동자로 일하고있는 차정국동무의 가정이다.

이들의 가정에는 꽃과 관련된 자랑들이 많았다. 꽃과의 인연속에 흐르는 한 가정의 아름다운 생활을 우리는 취재수첩에 적어나갔다.

올해 27살인 차정국동무는 어릴 때부터 화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고 한다.

차정국동무가 소학교에 다닐 때 어머니 김인숙녀성은 꽃에 대한 아들의 남다른 취미를 귀중히 여기고 터밭주변에 자그마한 꽃밭을 만들어주었다.

어느날 정국동무는 아버지가 주는 한권의 새 책을 받게 되였다.

표지에 《일기장》이라고 쓴 부피두터운 책의 첫 페지에는 꽃과 우리 생활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이 씌여져있었다.

《매일 꽃을 가꾸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기에 적어넣거라.》

이렇게 쓰기 시작한 정국동무의 일기장은 곧 커가는 애국의 마음을 비추어보는 량심의 거울이였고 그가 10여년세월 터득해온 갖가지 꽃재배방법들이 집약된 원예재배일지이기도 하였다.

그후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한 단위의 로동자로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디디였다.

보람찬 로동생활과 함께 차정국동무의 원예기술은 더욱 세련되여갔다.

매일 집앞의 꽃밭을 제손으로 가꾸면서 자란 차정국동무는 직장에서도 마을에서도 《타고난 원예사》로 불리웠다.

그래서인지 금방 시들어가던 꽃도 차정국동무의 손길이 가닿으면 언제 그랬던가싶게 다시금 활짝 피여나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군 하였다.

사업과 생활과정에는 실패의 순간도 있고 성공과 환희의 시각도 있다. 많은 일이 잘되지 않을 때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차정국동무는 꽃을 보며 자기 속생각을 터놓군 했다.

그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군 했다. 아름답게 피여난 꽃을 볼 때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정신도 맑아지며 해야 할 일의 방도들도 잘 떠오른다고.

《꽃집》에서 꽃펴나는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꽃과 함께 더욱 아름다와지는 우리 생활의 단면을 그려볼수 있게 하여주었다.

차정국동무의 마음속에 태양의 꽃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움터난것은 소년단시절 부모와 함께 태양의 꽃축전장들을 돌아보던 때부터였다고 한다.

어느날 김일성화꽃모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그의 부모는 깜짝 놀랐다. 가정에서의 김일성화재배는 힘든것으로 알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차정국동무는 물러서지 않았다.

평양과 정주를 비롯하여 여러곳을 찾아다니면서 불멸의 꽃재배경험을 배워오기도 하고 원예학과 관련한 도서들을 파고들면서 그는 끝내 불멸의 꽃 김일성화재배를 자체의 힘으로 성공시키고야 말았다.

수년세월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비롯한 화초재배에 깨끗한 량심과 정열을 바쳐온 차정국동무는 군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집단과 동지들의 기대속에 얼마전부터 선천군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로동자로 일하게 되였다.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차정국동무와 그의 가족은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꽃과 함께 마음도 성장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모도 눈굽을 훔쳤다.

우리와 만난 차정국동무는 원예사의 보람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그 꽃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차정국동무와 그의 가족이 피워가는 꽃들은 오늘도 아름다운 생활의 향기가 되여 마을과 일터들에 퍼져가고있다.

선천군의 《꽃집》에 대한 취재에서 우리는 참으로 깊은 인상을 받아안았다.

수령에 대한 충정의 마음도, 생활을 사랑하는 마음도 작은것에서부터, 자기 집 뜨락에서부터 싹트고 자라난다는것을.

본사기자 리신향

새 거리, 새 생활을 통해 본 우리 제도의 참모습

우리 당의 은정속에 새로 일떠선 려명거리를 돌아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며 우리 사회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입니다.》

려명거리 준공소식이 전해진지 한달이 넘었다. 그러나 지금도 사람들은 려명거리라는 말을 자주 화제에 올리며 그곳에서 꽃피는 새 생활에 대해 알고싶어한다.

하여 려명거리로 향했던 우리는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교원인 박사 부교수 정태순동무를 만나게 되였다.

그는 다짜고짜 우리를 이번에 새로 입사한 자기 집으로 이끌었다. 구색이 맞게 꾸려진 살림방들과 아늑한 서재, 부엌과 세면장…

걸볼안이라고 안팎으로 멋쟁이인 이런 희한한 살림집에 돈한푼 들이지 않고 입사를 했다니 얼마나 고마운 제도인가.

아기자기하게 꾸려진 방에 들어서며 정태순동무는 손녀애의 방이라고 소개했다.

뜨거웠다. 100㎡가 넘는 집에 이제 겨우 2살밖에 안된 어린이도 당당히 한방을 차지하고있으니.

《나라의 최고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으면서 박사로, 부교수로 국제토론회에 참가한 저를 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들이 제가 이렇게 려명거리의 덩실한 새 집을 받은줄 알면 탄성을 지를것입니다.》

정태순동무는 이렇게 말하며 매 세대의 먹는물보장은 저압, 중압, 고압, 고고압, 초고압 이렇게 5개의 계단식양수체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수질 또한 여간만 좋지 않다, 한겨울에도 방안온도를 20℃이상 보장할수 있게 되여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현대적인 살림집을 평범한 녀교원인 자기가 무상으로 받았다고 격정에 넘쳐 말했다.

실로 방마다 행복이 가득가득 넘치는 살림집이였다.

이런 훌륭한 집을 돌아보느라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그마한 생활의 보금자리도 없이 한지에서 살아야만 하는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 떠올랐다.

예로부터 이 설음, 저 설음 해도 집없는 설음이 제일 큰 설음이라고 했다.

새에게도 보금자리가 있다. 하거늘 제 집도 없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하는 사람들의 서러운 심정을 어찌 다 헤아리랴.

더우기 극소수의 착취계급을 위해 복무하는 불평등한 사회제도에서 평범한 근로대중이 돈한푼 내지 않고 집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남조선의 어느 한 출판보도물이 최근년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엄청나게 비싼 집값때문에 자기 집이 없이 생활하는 세대수가 700여만세대나 되여 생존을 심히 위협당하고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셋방살이조차 할수 없어 쪽방, 판자집, 천막, 집합, 움막 등 집 아닌 집과 심지어 동굴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세대만도 68만세대에 달하고있다. 집을 마련하는것이 오죽 힘들었으면 남조선의 절대다수의 청년들속에서 련애,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로도 모자라 집을 포기하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세대》, 《칠포세대》가 늘어나고있다고 개탄하겠는가.

평범한 교원, 연구사들이 국가로부터 궁전같은 새 집을 무상으로 받아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얼마나 대조적인가.

돈이 없으면 집이 아니라 맨땅우에 몸을 웅송그려야 하고 나중에는 한지에 쓰러져 주검이 되여야 하는 랭혹한 사회, 이것이 바로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초인종소리가 울렸다.

정태순동무가 반색을 하며 집안으로 한사람을 데리고 들어와 소개를 했다.

《저의 동생입니다. 우리 대학 력사학부 부강좌장이예요. 동생도 이번에 70층초고층아빠트에 새 집을 받았답니다.》

그들이 부러웠다. 아니 우리의 가슴속에도 긍지가 부풀어올랐다.

한날한시에 고급주택을 무상으로 받아안은 오누이, 이런 일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바로 그런 사회, 그런 고마운 품에 우리가 안겨사는것이다.

우리는 밝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며 거리에 나섰다.

흥겨운 마음안고 우리가 다달은 곳은 《려명거리 황금노을상점》앞이였다.

이름만 불러봐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상점에 들어서니 손님들이 흥성거렸다.

모란봉구역 장현동에 산다는 한 녀성은 밀차에 갖가지 상품들을 싣으며 판매원에게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상품들이 모두 우리것이로구만요. 〈철쭉〉양말, 〈봄향기〉화장품, 비단이불, 어린이옷, 가방… 정말 특색있습니다. 한가지씩 다 사겠습니다.》

한편 건재매대앞에서는 한 청년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618세멘트라고 쓴 상표며 문양고운 타일 등을 어루쓸며 그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 건재품들이 정말 대단해.》

그뿐인가. 식료품매대에서 우리의 상표가 붙은 각종 식료품들을 판매하는 봉사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였다.

우리 상품, 우리의 향기 가득 넘치니 얼마나 좋은가.

그것들이 다 우리 인민을 위한것이라고 생각하니 이름그대로 우리의 행복이 황금빛노을처럼 눈부시게 몰려오는것만 같았다.

우리의것에 대한 자부심을 안고 그토록 밝은 웃음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문득 우리의 머리속에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언제인가 어느 한 나라의 인터네트홈페지에 오른 《조선특유의 사회현상》이라는 글에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였다.

《…누구나 마음껏 배우고 일하며 태여나서부터 사회의 관심속에 인간의 권리를 누려가는 조선에서는 나라를 위하여, 사회의 번영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것을 호소하는 목소리만 크게 울려나올뿐 사회제도에 대한 울분과 저주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수 없다. 왜냐하면 조선에는 치료비, 집값, 세금 등 분노할 조건이 없기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어두운 그늘을 던지는 요소들이 조선에는 없으며 반대로 따사로운 해빛과도 같은 인민적시책들만이 실시되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가 사회의 모든 활동에 구현되고있는 조선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이다.

남조선만 놓고봐도 사회의 99%를 이루는 절대다수의 인민들이 막바지인생으로 살고있을 때 1%의 특권층, 부유층들은 인민들이야 죽든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일신의 치부와 영달, 향락에 물젖어있다.

지난해 괴뢰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격차는 2016년에 2006년의 8.8배에서 12배로 벌어졌으며 1 000만명의 로동자들이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을 때 특권층과 재벌들은 돈을 물쓰듯 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고있다고 한다.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얼마나 좋은 제도에서 우리가 살고있는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잇닿은 려명거리입구에서 우리는 생각했다.

우리가 돌아본 새 거리의 문명, 새 생활의 음향이 왜 그토록 아름답고 세상사람들이 왜 그토록 우리를 부러워하는것인지.

그것은 바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야말로 참된 삶의 보금자리이기때문이 아니랴.

려명거리에서 꽃피는 새 생활은 우리의 가슴속에 이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새겨주었다.

이 진리를 심장마다에 새기였기에 우리는 피로써 지킨다.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글 본사기자 오은별
사진 본사기자 리충성

일본은 미국의 불장난소동에 키질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일본반동들이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미국의 무모한 도발책동에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켜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당국자들은 년초부터 미국대통령과의 전화대화와 회담, 부대통령의 일본행각, 도꾜에서 벌려놓은 미국, 남조선괴뢰들과의 협상 등 모든 계기와 수단을 리용하여 우리의 핵 및 로케트발사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걸고들면서 우리에 대한 압박도수를 최대로 강화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미국이 규모와 강도, 실행방식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면핵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 17》합동군사연습으로 군사적압박수위를 최대로 높이면서 우리에 대한 《군사적선택》, 《선제공격》을 들고나오자 때를 만난듯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방위상을 비롯한 정객들이 남조선에 있는 《일본인구출》을 위한 《자위대파견》을 제창하는 등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조선반도로 기어드는 미항공모함타격집단과의 해상공동훈련, 공중전훈련뿐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조선반도유사시 미국주도의 련합군에 합세할 실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는것이다.

지금도 일본당국은 어용보도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여론을 와작 내돌리면서 국내에 전시분위기와 전쟁공포감을 조성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일본집권자는 미국이 무근거한 《화학무기사용》을 트집잡아 수리아에 대한 무차별적인 선제타격을 가하자 이를 극구 옹호하는것과 함께 조선도 미싸일을 리용하여 화학무기를 사용할수 있다고 고아대면서 사회적으로 대조선적대시분위기와 위기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우리의 《미싸일공격과 대규모테로》에 대처한 주민들의 피난순서라는것까지 발표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래 처음으로 전국적범위에서 재해방지 및 위기상황에 대비한 훈련들을 벌려놓는 등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듯이 부산소동을 피우고있다.

세계여론은 일본당국의 이러한 광란적인 소동에 대해 《저수준의 비렬한 행동》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나쁜 영향을 조성》하는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하면서 《조선의 위협과 불안》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는 선동적인 행동을 자제할것을 요구해나서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미국의 대조선전쟁책동에 쌍피리를 불어대면서 우리의 《위협설》과 《조선반도위기설》을 극대화하고있는데는 무엇보다도 군사대국화, 해외침략야망을 기어이 성취하기 위한 《대의명분》을 마련하자는 흉심이 깔려있다.

일본제국주의가 《대동아공영권》을 제창하면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깔고앉아 억대의 인적, 물적자원을 강탈하고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특대형반인륜적범죄행위를 저지르다가 패망한 때로부터 어언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군국주의광신자들의 야망은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그 후예들에 의해 더욱 우심하게 되살아나고있다. 죄악에 찬 과거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전범자들을 《영령》으로 찬미하면서, 그 후예임을 내놓고 자부하면서 조상들이 못다한 군사대국화, 해외침략의 《대업》을 갈망하는것이 바로 일본의 극우익반동세력이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재침의 칼을 벼려온 사무라이후예들의 집요한 군사대국화야망은 이제 더이상 간과할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이 오늘날 헌법을 개악하는데 악을 쓰며 매여달리고있는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일본헌법은 국권을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행위를 영원히 포기한다는것, 륙해공군을 비롯한 무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에 빗장을 질러놓은 국가의 최고법전이다.

그러나 력대 일본반동들은 이 《평화헌법》을 자의대로 《해석》하는것과 같은 온갖 권모술수로 그에 위반되는 립법적, 행정적조치들을 련발하면서 군사대국화에로 질주하였다.

륙해공군을 다 갖춘 《자위대》무력, 해외파병과 무력간섭을 담보하는 《안전보장관련법》, 미국과의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 대대적인 군사비확대, 첨단공격무기들과 장비들의 개발 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위헌조치들로 하여 《평화헌법》은 무참히 구겨지고 사문화되고말았다.

이 유명무실해진 헌법을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지만 거치장스러운 빗장이나마 완전히 뽑아던지고 군사대국화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겠다는것이 바로 일본당국자들이 그처럼 모지름을 쓰는 헌법개악의 주되는 목적이라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5월초 헌법시행 70주년을 맞으며 일본의 현 집권자가 헌법을 기어이 뜯어고쳐 2020년에는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력설한데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일본반동들의 《숙망》인 헌법개악은 드디어 초읽기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지금 집권자민당패거리들이 우리의 핵 및 로케트발사문제를 구실로 《자위대》의 보복공격을 취할수 없게 만든 《평화헌법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여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겨끔내기로 미국에 찾아가 우리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포함한 그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악청을 돋구고있는것은 일본반동들이 《조선반도위기》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헌법개악의 《대의명분》을 마련하며 군사대국화, 해외침략의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 한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미국의 불장난소동에 키질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있는데는 일본특유의 교활하고 간상배적인 목적도 깔려있다.

일본이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선전쟁을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쾌재를 부르면서 온 일본땅을 미군의 출격기지, 보급기지, 후방기지로 통채로 내맡기고 막대한 군수품주문과 병참지원을 통해 챙긴 천문학적액수의 리윤을 밑천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결국 일본이 오늘날 자랑하는 《경제적번영》의 밑바탕에는 3년간의 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흘린 피가 진하게 슴배여있으며 전란의 고통속에 희생된 수백만 조선사람들의 원한과 넋이 묻혀있다. 40여년간의 식민지략탈로 고혈을 짜내고도 모자라 미국의 사타구니에 붙어 이 땅에 또다시 불을 지르고 우리 인민의 피를 빨아낸 가증스러운 흡혈귀! 그 피와 원한, 상실의 대가를 그 무엇으로 계산할수 있겠는가.

오늘날 일본반동들이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을 학수고대하고있는것은 과거에 맛본 《쾌락》을 잊을수가 없어 침략의 력사를 되풀이해보려는데 그 진의도가 있다.

지금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새로운 《잃어버린 30년》에 들어서고있다. 정착된 과잉생산구조가 위축된 수요를 덮어누르면서 경기순환이 막히고 자금, 설비, 로력의 전반적수축현상이 만연되여 국내경제전반이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아베노믹스》라는 불가사의한 《로선》을 짜내들고 공적자금이나 일본은행(중앙은행)을 동원하여 주식가격의 하락을 애써 막으면서 간신히 유지하고있는 현재의 《주가변동내각》은 언제 터질지 모를 거품경제우에 올라앉아 침략전쟁과 같은 사변적인 사태만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다.

결국 아베일당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는 출로로 꿈꾸고있는것은 다름아닌 지난 조선전쟁때와 같은 전시호경기인것이다.

일본당국이 지난해 9월 미국과의 물품로력호상제공협정(ACSA)을 개정하고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던 지난 4월 중순 국회에서 최종승인한것 하나만을 놓고서도 일본의 흉심을 충분히 엿볼수 있으며 최근 외신들이 《일본은 반도에서 하루빨리 전쟁이 터져 새로운 군수물자주문을 받으며 더 나아가 일본경제를 자극하여 죽음에서 소생하는것과 같은 회복을 가져올 수판알을 튕기고있다.》고 평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일본반동들이 《조선반도위기설》에 광란적으로 매여달리고있는데는 국내의 이목을 우리 문제에로 돌려 반아베기운을 무마시키고 장기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보려는 추악한 목적도 은폐되여있다.

아베는 지난해 10월 자민당총재임기규정을 3기 9년으로 늘임으로써 2021년까지 장기집권할수 있는 틀거리를 마련해놓았다. 하지만 자민당내에서는 아베의 《독주정치》에 대한 불만이 크며 야당들도 아베정권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하면서 만만치 않은 공세를 펴고있다.

최근에 드러난 아베일가의 모리또모학원을 둘러싼 추문사건, 후뗀마미군기지를 이설하는 문제,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각종 로동재해와 사회적악페, 동일본대지진과 구마모또지진의 피해복구가 지연되고있는 문제를 비롯하여 불안정한 요소들이 적지 않기때문에 아베정권에 대한 사회적지지률은 계속 떨어지고있다.

때문에 아베는 《안보통》이라고 불리우는 자기의 특기를 살리면서 사회적우려를 자극하고 우익세력과의 결탁을 강화하여 우경화풍조를 만연시키는 방법으로 장기집권을 이룩해보려 꾀하고있다. 여기서 중점을 두고있는것이 바로 《조선반도위기설》로 일본국내의 여론을 몰아가자는것이다.

아베의 장기집권은 단순한 우익세력의 세력권유지가 아니라 우에서 언급된 헌법개악과 군사대국화야망의 성취, 일미군사동맹의 강화와 전쟁을 통한 경제활성화 등 반동정치의 연장을 의미하는것으로서 내외의 심각한 불안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최근 일본과 세계 여러 나라의 언론들이 아베가 《조선반도위기를 국내정치에 로골적으로 리용하고있다.》고 하면서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제반 사실은 일본반동들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무모한 불장난소동을 부채질하면서 이를 저들의 군사대국화,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는데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있다는것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이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야욕을 추구하고있는것은 달라진 우리의 전략적지위와 저들의 처지를 똑똑히 분간하지 못하는 정치저능아의 과대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당국이 분수없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수행의 돌격대로 나서 조선전쟁때와 같이 《황금소나기》를 맞을 어리석은 꿈을 꾸다가는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징벌로 온 일본땅이 재더미로 화하는 참혹한 패배만을 맛보게 될것이다.

과대망상증에 들뜬 일본은 분별없이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 나라들과 인민들은 죄악에 찬 력사를 되풀이하려는 일본당국의 헌법개악놀음과 군국주의책동에 응당 각성을 높이고 그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야 할것이다.

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연구소

주체106(2017)년 5월 16일

살인마, 독재광들의 죄악은 반드시 결산된다

남조선인민운동사에는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하여 자기들의 소중한 피와 생명을 바쳐싸운 애국적인민들의 투쟁과 위훈이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광주인민봉기 37돐을 맞으며 우리 겨레는 친미군사깡패들의 파쑈독재통치를 청산하고 민주의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하여 굴함없이 싸운 봉기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을 되새겨보고있다.

광주인민봉기는 침략자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맺힌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였다.

《유신》독재자인 박정희역도가 비참한 종말을 고한 이후 남조선인민들은 《비상계엄령》의 해제 등 민주주의실현을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그러나 《12.12숙군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일당은 미제의 지령에 따라 급격히 고조되기 시작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요구에 군사파쑈폭거로 대답해나섰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도당은 모든 집회와 일체 정치활동의 금지, 모든 대학들의 페쇄, 출판보도물에 대한 엄격한 사전검열제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10》호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5월 17일 밤과 18일 새벽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주인사들을 체포하였다. 5.17파쑈폭거는 남조선에서 새로운 독재통치의 서막을 알리는 일대 파쑈광란이였으며 또 하나의 《정권》강탈음모였다.

미제의 배후조종밑에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지향에 5.17파쑈폭거로 도전해나선 군사깡패들의 망동에 격노한 광주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1980년 5월 18일 대중적인 봉기를 일으켰다.

봉기에는 대학생들과 중, 고등학교 학생들, 로동자, 농민, 인테리, 소상인, 종교인, 기업가,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한몸바쳐 자주, 민주, 통일을 안아올 의지밑에 죽음을 맞받아 용감히 싸웠다.

봉기자들은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라.》, 《유신체제를 철폐하라.》, 《양키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계엄군》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고 10일동안이나 도시를 사수하는 영웅적위훈을 떨쳤다. 전라남도에서 괴뢰통치체제는 거의 마비상태에 빠지고 인민들의 항거기운은 하늘을 찌를듯 높아졌다.

광주인민봉기의 거세찬 불길앞에 급해맞은 미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전두환역도로 하여금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하도록 할데 대한 지령을 내렸다. 이리하여 광주살륙작전에 땅크, 장갑차, 대포, 미싸일, 비행기 등 현대적인 살륙수단들로 무장한 공수특전대의 5개 려단을 비롯한 수많은 괴뢰군무력이 투입되였다.

광주에 들이닥친 살인마들은 피에 주린 야수와 같이 봉기자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2살짜리 젖먹이를 어머니앞에서 대검으로 찔러죽이고 광주천기슭에서 쓰러진 아버지의 시체를 붙잡고 목놓아우는 4살짜리 어린이를 《폭도의 종자를 멸족》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란도질해 죽이였다. 악귀들은 70대 고령의 늙은이도 하수구에 처박았으며 임신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내던지는것과 같은 치떨리는 살인광란도 서슴지 않았다.

나어린 간호원과 그의 철부지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괴뢰군악당들의 야수적만행은 또 얼마나 사람들을 몸서리치게 했던가. 부상당한 청년학생들을 살리려고 피를 모으러 나선 애어린 간호원을 붙잡은 놈들은 《그렇게 피가 요구되면 네 피부터 흐르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의 두팔을 묶고 나무에 거꾸로 달아맨 다음 대동맥을 끊어 죽였으며 누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의 어린 동생을 총탁으로 머리를 까서 죽였다.

이런 끔찍한 대학살만행으로 자유와 민주의 함성이 메아리치던 항쟁의 도시는 피바다에 잠기고 온 광주땅이 시민들의 무덤으로 변해버렸다. 당시 세계언론들은 광주를 《피의 목욕탕》, 《망령만이 배회하는 도시》로 묘사하며 군사파쑈도당의 야수적인 살인행위를 폭로규탄하였다.

광주인민봉기는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인민들의 민주화지향을 짓뭉개버리기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는 미제의 흉악한 살인귀적정체와 함께 외세를 등에 업고 권력을 유지하며 독재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민대학살에 미쳐날뛰는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잔악한 몰골을 그대로 드러내보여주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길에 남조선인민들이 뿌린 피는 절대로 헛되이 되어서는 안된다. 광주의 항쟁용사들은 쓰러지면서도 자주와 민주, 통일을 애타게 웨쳤다.

하지만 광주인민봉기이후에도 남조선에서는 외세의 식민지지배가 계속 강화되고 상전을 등에 업은 괴뢰통치배들의 파쑈폭압통치, 민족반역책동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였다.

광주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근 40년세월이 흘렀지만 자주화되고 민주화된 사회, 통일된 조국에서 살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념원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의 식민지지배자로 군림하고있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며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철저히 짓밟아온 괴뢰역적패당때문이다.

특히 박근혜역도는 집권후 제 애비의 《유신》독재체제를 고스란히 되살리면서 선임자들을 찜쪄먹는 파쑈통치로 남조선인민들을 끝없는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고 온 남조선을 민주의 페허로, 인간도살장으로 만들었다.

괴뢰역도는 극도의 오만과 독선에 빠져 인민들의 요구에 귀를 틀어막고 자기의 독재통치에 반기를 드는 진보민주세력을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통합진보당이 《종북정당》으로 몰려 강제해산당하고 전교조가 합법적인 지위를 박탈당한 사실 그리고 《자주민보》가 강제로 폐간되고 민주로총 위원장이 철쇄에 묶이여 감옥에 갇힌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진보민주세력뿐이 아니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평화적투쟁에 나선 사람들도 파쑈깡패들의 무지막지한 폭행의 대상으로 되였다. 바로 그 과정에 고령의 백남기농민이 경찰이 미친듯이 쏘아대는 물대포에 맞아 사경에 처했다가 끝내 사망하는 비극적참사까지 빚어졌다. 이것은 전두환역도를 비롯한 군부파쑈깡패들이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 온갖 살인만행을 저지르던 암흑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몸서리치는 현실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박근혜패당이 광주인민봉기를 《종북세력들의 폭동》으로 몰아대며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봉기기념행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봉기자들의 항거정신을 말살하려고 기승을 부린 사실이다. 이것은 광주시민들을 무참히 살륙한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죄악과 결코 다를바 없는 박근혜역도의 죄악을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력사는 외세와 야합하여 파쑈독재통치에 미쳐날뛴 극악무도한 매국역적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

두손을 광주시민들의 피로 물들인 살인악마 전두환역도가 집권기간에 저지른 용납 못할 만고죄악으로 하여 민심의 규탄을 받고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가련한 신세에 처하였다면 박근혜역도는 그보다 더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박근혜가 인민들의 한결같은 증오와 배척속에 탄핵되여 감옥에 처박힌것은 역도가 《유신》독재부활에 미쳐날뛰며 남조선을 민주와 인권의 처참한 무덤으로, 파쑈독재가 살판치는 인간생지옥으로 전락시킨 그 엄청난 죄악에 따른 응당한 대가이다.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역행하며 매국과 반역을 일삼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력사와 인민의 준엄한 징벌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주화, 민주화되고 통일된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해 광주항쟁용사들의 투쟁정신으로 힘있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장임향

《싸드》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선언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싸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싸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싸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싸드》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13일 성주에서 《싸드》배치철회를 요구하는 제3차 소성리범국민평화행동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싸드》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싸드》를 기필코 저지시켜 주권과 평화, 주민의 생존권을 지켜낼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찰이 병력을 성주에서 철수시키며 배치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원불교인들이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17일째 단식롱성을 벌리고있는데 언급하면서 제2의 독립운동정신으로 《싸드》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그들은 밝혔다.

이날 원불교를 비롯한 각 종교단체들이 《싸드철회를 위한 종교인평화련대》(종교인평화련대)를 구성하고 《싸드》반대투쟁에 돌입하였다.

단체는 《싸드》가 조선반도에서 물러가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교조 합법화와 교육체제의 전면개편을 주장

남조선신문 《로동과 세계》에 의하면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이 15일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지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화의 철회와 교육체제전면개편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새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화철회와 로동기본권쟁취, 교육악페청산, 교육체제전면개편 등을 시급히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촉불시민들이 박근혜의 악페청산을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화철회는 교육악페청산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난해 수십명의 교원이 전교조에서 활동하다가 해고된데 이어 올해에도 교원들이 교육부의 압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였다고 그들은 성토하였다.

그들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법외로조화의 후속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정부》가 27일까지 개혁과제에 대한 실현계획을 밝히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악페청산투쟁에 돌입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끝까지 징벌해야 할 박근혜역적무리

박근혜역적패당이 저들의 추악한 범죄의 흑막을 덮어버리려고 획책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새로 들어선 《정권》의 참모들이 인계인수를 위해 《대통령》비서실장의 방에 들어가보니 10장짜리로 된 업무보고서외에 다른 문서는 하나도 없었다는것이다. 콤퓨터의 자료들도 말짱히 지워져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들과 각계층은 《국정》롱락사건의 진상을 덮어버리려는 박근혜패당의 비렬한 술책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있다.

박근혜년의 특대형부정추문사건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문서들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제년의 범죄행적이 관련문서들을 통해 계속 밝혀지는데 당황망조한 역도는 이를 막아보려고 청와대졸개들에게 모든 문서를 소각할데 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놓고 이를 집행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국정》롱락사건의 핵심관련자인 청와대 전 비서실장 김기춘을 시켜 추문사건의 내막이 담겨진 자료들을 빼돌리는것도 모자라 수십대의 문서파쇄기들을 청와대에 끌어들여 소각해버리도록 하였다.

손전화기들에 남아있는 기록들에 의해서도 범죄행적이 드러나자 역도년은 《북의 해킹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괴뢰정보원을 내세워 괴뢰당국의 현직 장관과 청장, 그 보좌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업무용손전화기를 폐기처분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난 4월 황교안과 청와대비서실패거리들을 비롯한 역적패당은 《세월》호참사당일의 보고문서를 비롯하여 청와대문건 수만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만들어놓았다.

특대형부정추문사건과 관련하여 《사퇴》놀음을 벌려놓던 역도가 돌변하여 《국회》의 탄핵안통과는 불법적처사이며 탄핵리유도 사실이 아닐뿐아니라 이를 립증할만 한 증거도 없으므로 기각되여야 한다고 떠벌이며 불복소동을 벌리고있는것은 저들의 추악한 범죄의 내막을 더는 감추어낼수 없다는데로부터 출발한 비렬하고 어리석은 망동이다.

박근혜년과 그 졸개들의 발악적망동에 의해 박근혜년에 대한 심판은 지연되고있다.

그러나 박근혜패당은 그 어떤 오그랑수로써도 민심의 심판을 모면할수 없다.

인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며 《유신》독재부활과 반인민적악정으로 남녘땅을 중세기적암흑천지, 민주, 민생, 민권의 가장 참혹한 불모지로 전락시킨 박근혜역적무리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조금도 식지 않고있으며 온갖 악페를 청산하고 새세상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과 더불어 더욱 승화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살리기에 황교안, 홍용표 등 보수세력이 총동원되였다.》, 《보수정권이 만들어놓은 모든 적페를 청산할 때만이 진정한 민중의 새세상이 마련될수 있다.》, 《국정롱단사건과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라.》고 하면서 역도년과 그 일당이 더는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투쟁을 광범히 벌리고있다.

박근혜역적무리의 무덤행은 시간문제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멸망의 나락에서 발버둥치는 박근혜역도와 그 일당에게 최후의 심판을 안기고야말것이다.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아보려는 무모한 객기

최근 남조선괴뢰들이 미핵동력항공모함 《칼빈손》호타격단과의 련합해상훈련을 계속 강행하는 한편 남조선강점 미군의 《아파치》공격용직승기구분대를 서해열점수역에 배치하는 등 우리에 대한 군사적위협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도 부족하여 북침전쟁연습의 련속강행으로 《선제타격》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 하고있다.

더우기는 괴뢰들이 미국의 《특수작전》, 《선제타격》기도에 발을 맞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무장장비도입 및 개발책동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유사시 《참수작전》을 담당할 특수임무려단을 올해중에 창설하려고 서두르면서 특수부대용 무장장비를 갖추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우리의 핵, 미싸일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부대의 전투준비를 빨리 완성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은밀한 침투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4대의 개조형 《C-130》수송기를 다음해까지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운용하고있는 직승기들인 《CH-47D》, 《HH-47D》를 특수작전용으로 성능을 개량하는 작업도 진행하려 하고있다.

2020년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특수작전지원함선을 개발하여 실전배치하기로 하고 자체개발한 저격보총을 특수부대들에 보급하였다. 특수부대용 신형류탄발사기도 개발하고있으며 극소형무인기 12대를 도입하려 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괴뢰들은 우리의 이동식탄도로케트와 장갑무력을 《선제타격》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무기체계구축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우리의 이동식탄도로케트위력에 질겁한 괴뢰들은 차량들을 찾아내여 식별하고 위치를 알려주는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것과 함께 다음해 상반기까지 3-4대의 위성들을 다른 나라에서 임대하여 운용하며 위성과 무인기 등을 통해 얻어낸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는 융합정보체계와 차량을 정밀타격할수 있는 복합유도폭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한편 자체로 개발하였다고 하는 휴대용반땅크로케트 《현궁》을 최전방사단에서의 실전운용을 거쳐 10월부터 모든 괴뢰군부대들에 도입하려 하고있으며 장거리반땅크로케트무기도 2020년대 중반기까지 개발완성하려 하고있다.

우리의 탄도미싸일공격에 대비한다고 떠들며 2020년부터 실전배치하기로 하였던 중거리요격미싸일 《철매-2》를 다음해부터 실전배치할것이라고 줴쳐대고있다.

이밖에도 괴뢰들은 래년부터 미국으로부터 《F-35A》전투기를 단계적으로 끌어들이는 등 각종 첨단무기들을 개발도입하여 《선제타격》에 리용하려고 발광하고있다.

이것은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에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느낀 괴뢰호전광들이 어떻게 하나 저들의 군사적렬세를 만회하며 죽음의 문앞에서 살구멍을 찾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 단말마적발악이다.

오늘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그칠새없이 악랄하게 벌리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핵전쟁발발전야에 놓여있다.

괴뢰들이 아무리 북침핵전쟁소동에 미쳐날뛰어도 그것은 반공화국압살흉계를 끝끝내 이루지 못하고있는 저들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한 무모한 발광이며 허장성세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추구하는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식의 핵타격전으로 대응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만일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감히 북침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침략세력과 그 아성을 모조리 초토화해버릴 우리 천만군민의 의지는 더욱 굳세여지고있다.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으로 위용떨치는 우리 공화국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참혹한 후과가 상상도 할수 없다는것을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다.

일본의 저렬한 압박행위, 무능한 《정부》

8일 남조선 《한국일보》가 일본군성노예관련자료의 세계기록유산등록문제와 관련하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압박하는 일본의 저렬한 행위와 그에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괴뢰정부를 규탄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여러 나라 시민단체들이 일본군성노예관련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할것을 신청한데 대한 불만으로 일본이 분담금지급보류라는 조치를 들고나왔다고 비난하였다.

굴욕적인 성노예문제《합의》이후에도 력사를 부정하는 망언을 늘어놓고있는 일본의 태도를 볼 때 유네스코를 상대로 한 행동은 새삼스러울것이 없다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문제는 남조선《정부》의 안이하고 무책한 자세라고 하면서 사설은 여러 나라의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본군성노예관련자료의 등록을 일본정부가 개입하여 로골적으로 방해해나서고있지만 《정부》는 마치 남의 나라 일인듯 뒤짐만 지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에서 산불로 많은 피해 발생

9일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산불로 많은 피해가 났다.

6일 오전 남조선강원도 삼척시에서부터 시작된 산불은 강릉시와 경상북도 상주시, 영덕군의 넓은 지역에서 타번졌다.

나흘동안 계속된 산불로 수십동의 살림집과 340㏊의 산림이 타버렸으며 사상자들이 나고 수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삼척시에서만도 270㏊의 산림이 재더미로 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71078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우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